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경 희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칸딘스키 작품의 조형요소를
응용한 바디아트 제작

2016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융합대학원
뷰티융합학과 메이크업·특수분장전공
문 수 진

칸딘스키 작품의 조형요소를 응용한 바디아트 제작

김 경 희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융합대학원
뷰티융합학과 메이크업·특수분장전공
문 수 진

인 준 서

문수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6년 5월

심사위원장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융합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칸딘스키 작품의 조형적 특성을 응용하여 바디아트로 제작하고자 한다.

칸딘스키는 오늘날 미술의 정신적인 가치와 색채에 대한 탐구로 20세기 가장 중요한 예술 이론가 중 한 사람으로, 사실적인 형태를 버리고 순수 추상화의 탄생이라는 미술사의 혁명을 이루었다.

칸딘스키는 20세기 이후 컨스트럭티비즘의 영향으로 구성요소들이 명확성을 띠었다. 점, 선, 면 및 형태를 갖추고 다양한 색채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양상을 띄고, 작품은 수학적으로 제한된 엄격한 형태가 지배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컨스트럭티비즘 이후에 변화된 칸딘스키 작품의 조형적 특성을 이해하고, 칸딘스키 작품을 응용하여 바디아트를 제작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방법은 학술자료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칸딘스키와 바디아트의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고, 칸딘스키의 작품의 조형요소가 나타나있는 작품을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작품을 응용하여 바디아트를 제작하였다.

첫 번째 작품은 구성요소 중 ‘점’을 상징하는 작품 “심사가 없는 전시를 위한 벽화 디자인 벽B”을 모티브로 하여 응용하고 바디아트를 제작하였다. 이 그림에 나타나 있는 수많은 점들 중 우측에 있는 점의 집단과, 그 점들을 가르고 있는 선을 모티브로 하여 그림을 재해석하고 인체의 상반신 전면을 캔버스화 하여 디자인 하고, 전체의 골격이 하나의 통일감을 갖도록 구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선을 상징하는 작품은 평행선, 대각선을 상징하는 두 점을 선정하고 응용하여 바디아트를 제작 하였다.

두 번째 작품은 선을 상징하는 작품 중 “결합”을 응용한 작품으로 면의

분할과, 운동방향의 힘을 표출하고자 움직임의 가능성을 지닌 대각선을 모티브로 하여 디자인하고 바디아트로 제작 하였다.

세 번째 작품은 선을 상징하는 두 작품 중 “느슨함 속의 딱딱함”을 응용한 작품으로, 반복적인 평행선과 이를 수직 교차하는 선으로 구성에 긴장감 나타나도록 디자인하였다.

네 번째 작품은 면을 상징하는 작품 “어둠 속으로”에서 나타난 삼각형 방향을 모티브로 응용하여 역동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고, 바디아트를 제작하였다.

다섯 번째 작품은 색채를 상징하는 작품 “노랑·빨강·파랑”을 응용하여 바디아트로 제작하였다. 삼원색 위에 나타나 있는 기하학적 구성요소를 모티브로 하여 삼원색과 삼원색에서 파생되는 색들로 구성하여 디자인 하였다.

여섯 번째 작품은 형태를 상징하는 “파란 활 모양”을 응용하고 활모양을 상징하는 구성요소를 모티브로 하여 바디아트로 제작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 연구의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칸딘스키 작품 조형요소를 점, 선, 면, 색채, 형태로 분류 하였고, 분류한 조형 요소를 상징하는 작품을 응용하여 점 1점, 선 2점, 면 1점, 색채 1점, 형태 1점, 총 6점의 바디아트로 제작하였다.

작품 제작은 인체를 캔버스로 간주하고, 인체용 수성 물감과 파운데이션, 에어브러시, 인조속눈썹 등의 다양한 재료를 디자인 의도에 맞게 사용하여 회화적 기법과 에어브러시 기법으로 바디아트를 제작 하였다.

촬영 후 포토샵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사진을 편집하고 보정함으로써 연출의도의 부족함을 보완하였고, 이에 더 효과적인 작품을 제작 할 수 있었다.

칸딘스키 작품특성을 바디에 접목시켜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바디아트 디자인을 창출하고 작품제작을 함으로써, 회화와 바디아트의 결합이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바디아트 작품을 제작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작가의 회화와 바디아트를 접목한 바디아트 디자인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더 많은 작가들의 작품이 재해석되어 시각적 디자인과 표현방법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II. 이론적 배경	3
1. 칸딘스키	3
1) 칸딘스키의 생애	3
2) 칸딘스키의 작품	5
2. 바디아트	10
1) 바디아트의 개념 및 기원	10
2) 바디아트의 이미지 표현기법	12
3. 칸딘스키 작품의 조형요소	18
1) 점	18
2) 선	20
3) 면	21
4) 색채	22
5) 형태	25
III. 작품 제작	30
1. 작품 제작의도 및 디자인 계획	30
2. 작품 제작	33

IV. 결론 및 제언 57

참 고 문 헌

ABSTRACT

표 목 차

<표 1> 칸딘스키 작품을 재해석한 작품 디자인 계획	32
<표 2> 작품 I 디자인 이미지	35
<표 3> 작품 II 디자인 이미지	39
<표 4> 작품 III 디자인 이미지	43
<표 5> 작품 IV 디자인 이미지	47
<표 6> 작품 V 디자인 이미지	51
<표 7> 작품 VI 디자인 이미지	55

그림 목 차

<그림 1> 마음속의 축제	8
<그림 2> 여자들이 있는 무르나우의 거리	8
<그림 3> 에드윈 캠벨을 위한 패널 No. 4	8
<그림 4> 무제	8
<그림 5> 작은세계4	9
<그림 6> 상호 동의	9
<그림 7> 회화적 기법	16
<그림 8> 에어브러시 기법	16
<그림 9> 오브제 기법	16
<그림 10> 3D 디지털 기법	16
<그림 11> 텍스처 기법	17
<그림 12> UV 블랙라이트 기법	17
<그림 13> 심사가 없는 전시를 위한 벽화 디자인 벽B	26
<그림 14> 느슨함 속의 딱딱함	27
<그림 15> 결합	27
<그림 16> 어둠 속으로	24
<그림 17> 긍정	27
<그림 18> 검은	28
<그림 19> 노랑·빨강·파랑	28
<그림 20> 하늘 색	28
<그림 21> 파랑을 향하여	28
<그림 22> 구성8	29
<그림 23> 꿈의 운동	29

<그림 24> 흰색 위에	29
<그림 25> 파란 활 모양	29
<그림 26> 작품 I	36
<그림 27> 작품 II	40
<그림 28> 작품 III	44
<그림 29> 작품 IV	48
<그림 30> 작품 V	52
<그림 31> 작품 VI	56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정보화 사회에서 수많은 이미지들을 접하고 있으며 다양한 정보를 공급 받음으로써 시각적으로 차별화 된 것을 끊임 없이 갈구하게 된다.

또한, 디지털 시대는 세계화와 정보화로 인하여 산업사회의 패러다임 변화와 더불어 등한시 되었던 문화적 콘텐츠가 과거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¹⁾

오늘날의 바디아트는 아티스트들에게 있어서 인체 발상을 통한 중요한 수단이자 대상으로 선택되고 있으며, 새로운 표현 기법으로 인체의 예술적 아름다움이 표현되고 있다.²⁾

본 연구의 목적은 칸딘스키 작품의 구성요소를 응용하여 바디아트를 제작함으로써 회화와 바디아트의 결합으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바디아트 작품을 제작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방법은 학술자료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칸딘스키와 바디아트에 대하여 고찰하고, 컨스트럭티비즘 이후 칸딘스키의 작품을 도출 하여, 도출된 작품의 조형요소를 응용하여 바디아트로 제작한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의 고찰을 통하여 칸딘스키 작품 조형요소를 점, 선, 면, 색채, 형태로 분류 하였다. 점을 상징하는 작품 한 점, 선을 상징하는 작품 두 점, 면을 상징하는 작품 한 점, 색채를 상징하는 작품 한 점, 그리고

1) 방기정(2011). “하이브리드 탈 장르화를 응용한 메이크업 디자인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

2) 신원산·권태순(2014). “아트 메이크업 발상”, 서울: 훈민사, p.10

형태를 상징하는 작품 한 점 까지 총 여섯 점의 작품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여섯 점 에서 상징하는 표현요소를 응용하여 디자인을 하고 바디아트 표현기법 중 회화적 기법과 에어브러시 기법을 활용하여 바디아트를 제작함으로써, 회화와 바디아트를 접목한 바디아트 디자인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칸딘스키

1) 칸딘스키의 생애

러시아 태생의 바실리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 1866~1944)는 추상 미술의 아버지이자 청기사파(Der Blaue Reiter)³⁾의 창시자로 사실적인 형체를 버리고 순수 추상화의 탄생이라는 미술사의 혁명을 이루어냈다.⁴⁾

회화에 관심이 많았던 칸딘스키는 1879년부터 유화를 그리기 시작하여⁵⁾ 1889년 페테르부르크에서 여행 중 렘브란트 판 레인(Rembrandt Van Rijn, 1606~1669)⁶⁾의 그림을 보고⁷⁾ 강한 인상을 받아 미술에 대한 열정이 생겼다.⁸⁾ 1908년 이후에는 뮌헨과 무르나우에 살면서 1910년부터 추상회화를 그리기 시작하였으며 1911년 표현주의 화가인 프란츠 마르크(Franz Marc, 1880~1916)⁹⁾ 와 함께 뮌헨에서 예술가집단인 청기사파를 조직하여 추상회화의 선구자가 되었다.¹⁰⁾

3) 청기사파(靑騎士派, Der Blaue Reiter): 다리파와 함께 독일 표현주의의 주요한 유파로서, 이 명칭은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1866~1944)와 마르크Franz Marc가 1912년에 피퍼(Piper) 서점에서 간행한 잡지 '청기사'에서 유래했다.

4) 바실리칸딘스키.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49206&mobile&cid=40942&categoryId=34391>, 2016.03.11. 검색).

5) 김광우(2015). "칸딘스키와 클레 - 추상미술의 선구자들" 경기: 미술문화, p.28.

6) 렘브란트 판 레인(Rembrandt van Rijn, 1606~1669): 네덜란드의 화가, 판화가. 라이덴에서 출생하여 암스테르담에서 사망.

7) 신화정(2015). "바실리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작품의 조형적 요소를 응용한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6-7.

8) 이진숙(2007). "러시아 미술사". 서울: 황금가지, p.346.

9) 프란츠마르크(Franz Marc, 1880~1916): 독일의 표현주의 화가. 바실리 칸딘스키와 청기사파를 결성했으며, '청기사' 연감을 공동 집필하였다. 후기 인상주의, 야수파, 미래파, 입체파의 영향을 다이내믹한 색채감각으로 흡수하면서 자연 속의 동물 및 인간과 자연의 우주적인 통합을 지속적인 주제로 다뤘다.

1914년 러시아로 간 칸딘스키는 자본주의적 요소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정책을 취하던 러시아에서¹¹⁾ 입체파와 미래파 예술가에 의해 발생한 미술운동인 컨스트럭티비즘을 접하게 된다.¹²⁾

컨스트럭티비즘은 1917년 러시아에서 일어난 예술혁명으로, 20세기에 가장 독특하고 활동적인 아방가르드¹³⁾ 예술의 한 사조이다. 컨스트럭티비즘 이후 칸딘스키는 완전한 추상에 몰입하여 이전의 표현주의 시대의 작품들과 관점이 달라지면서¹⁴⁾ 작품에 기하학적 형태들이 관류하기 시작한다.¹⁵⁾

월터 그로피우스(Walter Gropius, 1883~1969)¹⁶⁾는 1920년, 미술전을 통한 교류를 위하여 칸딘스키를 베를린에 정식으로 초대한다. 베를린으로 간 칸딘스키는 인후크(INKHUK)¹⁷⁾의 교육 프로그램을 진수함으로써 형태의 인식 문제와 예술적 교감을 위한 방법 및 형식구조와 행동양상 사이 관계 등의 이론이 바우하우스(Bauhaus)¹⁸⁾에 퍼지게 된다.¹⁹⁾

파리에서의 칸딘스키 작품은 공중에 가볍게 떠있는 것, 또는 지칠 줄 모르고 계속해서 회전하는 것과 같은 모티브로 구성된다(그림 1). 파리에서 마지막 생을 보낸 칸딘스키는 오늘날 독자적이고 논리적인 조형 이론을 바탕으로 현대미술의 이론적 토대를 세우면서, 지배적인 영향을 보이며, 추상미

10) 김경희(2013). “칸딘스키와 피테의 예술론에 나타난 유기체적 조화”, *독일언어문학*, 60(0), pp.75-92.

11) 맹유진(2008). “러시아 구축주의 미술작품과 조각을 모티브로한 컨슈머 헤어작품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14(4), pp.1547-1561.

12) 박태용(2006). “러시아 구성주의 무대양식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4.

13) 아방가르드: 예술의 가장 진보된 창조를 목표로 하며, 과거의 모든 전통과 체계를 거부하는 예술 집단으로 주된 문화보다 한발 앞서간다는 의미.

14) 김혜숙(2008). “칸딘스키(Kandinsky) 회화의 조형성 연구: 바우하우스 시대를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6

15) 박경화·권수애(1998). “칸딘스키 색채론을 통해 본 현대의상 연구”, *생활과학 논문집*, 1(0), pp.65-79.

16) 그로피우스(Walter Gropius, 1883~1969): 베를린 태생의 독일의 건축가·사상가·교육자이며, 1918년 바이마르의 미술학교와 공예학교를 통합하여 예술·과학·기술의 종합을 목적으로 한 획기적인 조형 학교인 바우하우스를 창설하였다.

17) 인후크(INKHUK): 소비에트 정부의 미술교육기관, 모스크바 예술문화 연구소.

18) 바우하우스(Bauhaus): 1919년 그로피우스(Gropius, W.)를 시작으로, 한네스 마이어(Hannes Mayer)가 설립한 바우하우스는 1933년까지 존재했던 독일의 조형학교이다.

19) 손봉균·이희봉(2004). “1920년대 러시아 건축 상황에 관한 연구 -OSA(현대건축가동맹)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계획계)*, 24(2), pp.861-864.

술의 선구자로 결정적인 역할 한 예술가들 중 한 사람이다.²⁰⁾

2) 칸딘스키의 작품

1879년부터 유화를 그렸던 칸딘스키는, 1896년 화가가 될 결심을 하고 뮌헨으로 가 기초부터 회화 공부에 힘썼다. 뮌헨에서의 칸딘스키는 <그림 2>의 “여자들이 있는 무르나우의 거리”와 같이 각지를 여행하면서 유화, 템페라화²¹⁾를 그렸다.²²⁾

칸딘스키의 작품은 1916년 러시아에서 컨스트럭티비즘 이후 많은 변화가 생긴다. 작품에 타원형과 원, 삼각형이나 마름모 형태들이 자주 등장하고 기하학적 요소들이 선명하게 나타나며 어둡고 차분한 색채로 연출하면서 순수 추상으로 접어들게 된다.²³⁾

컨스트럭티비즘의 영향을 받은 칸딘스키는 외적인 것에서 내적인 것으로 눈을 돌린 예술로 정신적인 구조의 탐구에서 새로운 형상의 가치를 발견하였다.²⁴⁾ 칸딘스키의 추상 미술 탄생은 대상의 붕괴와 미의 형식으로 합리적 기능미와 세련된 지성미를 요구했던 것이며, 추상은 바로 여기서 나온 것이다.²⁵⁾ 칸딘스키는 추상을 형태와 색채가 대상에 속박되지 않고 자유롭게 작가에 의해 변형되는 현상에서 자유를 느끼고, 이를 자동화하여 진부해진 일상 체험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말한다.²⁶⁾

칸딘스키의 명성은 추상회화를 개척한 것 에서부터 시작 되었다고 할 수

20) 신화정(2015). op.cit., p.6.

21) 템페라화: 수채 물감에 안료와 계란 노른자, 흰자를 섞어 그리는 것으로 유화가 발명 되기전, 행해지던 기법이었는데 쉽게 말하면 수채물감으로 유화의 느낌을 내는 것이다.

22) 김혜숙(2008). op.cit., p.24.

23) 신화정(2015). op.cit., p.15.

24) 김화성(2007). “칸딘스키 회화의 조형적 특성 연구”,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

25) 이영환(1978). “서양미술사”, 서울: 박영사, p.416.

26) 김길용(2000). “모더니즘 시오 회화의 구조적 상동성(1) - 벤의 절대시론과 칸딘스키의 추상론의 비교”, *독일문학*, 75(0), pp.138-166.

있다.²⁷⁾ 칸딘스키는 작품에 있어 추상은 선형적 정신성에 의한 귀착이며, 초월적이고 종교적인 감정의 구현인 것이라 하였다.²⁸⁾

1916년 이후 칸딘스키 작품에서는 컨스트럭티비즘 이전의 표현주의 추상화와는 다르게 기하학적인 형태를 작품 속에 관류하기 시작하여(그림 3), 작품의 기하학적인 형태들이 회화의 순수성에의 노력과 더불어 변천되면서²⁹⁾ <그림 4>, <그림 5>와 같이 기하학적형태가 명확하고 구성적인 추상으로 변화하였다.

컨스트럭티비즘 이후 이러한 기하학적 구성의 경향이 나타난 이유는, 칸딘스키는 기하학적 형태가 수학적 규율과 합리적 사고로 이루어진 것으로 가능한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성격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³⁰⁾

변화된 칸딘스키 작품의 추상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형성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³¹⁾ 기하학적 구조는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 즉 입방체, 원통, 구, 원뿔, 피라미드 등을 기본 형태로 하는데, 그것들은 서로 대립 되거나 조화와 균형이란 구성 법칙에 따라 안정된 양상블로 결합되어 하나로 축조된다.³²⁾

칸딘스키는 기하학적인 표현을 통하여 회화 양식의 탈바꿈을 시도하는데 <그림 6>의 “상호동의”에서 볼 수 있듯이 초승달 모양, 마름모꼴, 날카로운 각과 반달, 원 등으로 기하학적인 순수형태를 만들기 시작하였고 이런 양식은 바우하우스를 거치면서 더욱 논리적인 의미를 담으며 발전하게 된다.³³⁾

칸딘스키는 사물의 단계적 단순화로, 외부 대상에 대한 감각 지각을 거치

27) 홍일희(2013). “니체와 칸딘스키의 예술론 -음악과 회화를 중심으로-”, *뽀한철학*, 68(0), pp.171-196.

28) 노영덕(2003). “글과 그림의 만남 가능성 : 비 모방 예술의 경우 - 칸딘스키 추상 미술과 고대 영감론의 시문학을 중심으로”. *미학·예술학 연구*, 18(0), pp.137-164.

29) 박경화·권수애(1998). op.cit., pp.65-79.

30) 박태용(2006). op.cit., p.28.

31) 이찬협(2015). “러시아 구성주의 무대미술 특성 연구”, 상명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6-47.

32) 손호영(2008). “현대 패션에 나타난 러시아 구성주의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80.

33) 김숙경(2006). “칸딘스키”, 서울: 재원, p.92.

지 않고 순수 관념을 통하여³⁴⁾ 추상회화에서 구체적으로 현시됨을 작품을 통하여 표현하고자 하였다.³⁵⁾

칸딘스키의 작품은 기하학적 구성을 취하고 있는 형태와 색채 또한 심리적 효과를 불러오고, 나아가 그에 상응하는 정신적 동요를 만들어 낸다고 생각했으며,³⁶⁾ 대상과의 관련성을 벗어난 “순수한 색채와 독립적인 형태”를 화폭에 제시하여, 보는 이를 통해 영혼의 감동을 얻고, “내적 체험”에 이르게 하였다.³⁷⁾

칸딘스키 작품에서 말하는 예술은, 어떠한 대상을 맹목적으로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며, 인간의 심성을 순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힘인 것이다.³⁸⁾

34) 노영덕(2003). op.cit., pp.137-164.

35) 임지연(2011). “셸링(F.W.J.Schelling)의 ‘무한한 생성’의 이념으로 본 칸딘스키(W. Kandinsky)의 추상회화”, *기초조형학 연구*, 12(1), pp.461-469.

36) Ibid., pp.461-469.

37) 김길웅(2000). op.cit., pp.138-166.

38) 이경숙(2012). “칸딘스키(Kandinsky)의 예술에서 본 댄스스포츠”, *한국체육철학회지*, 20(3) pp.361-3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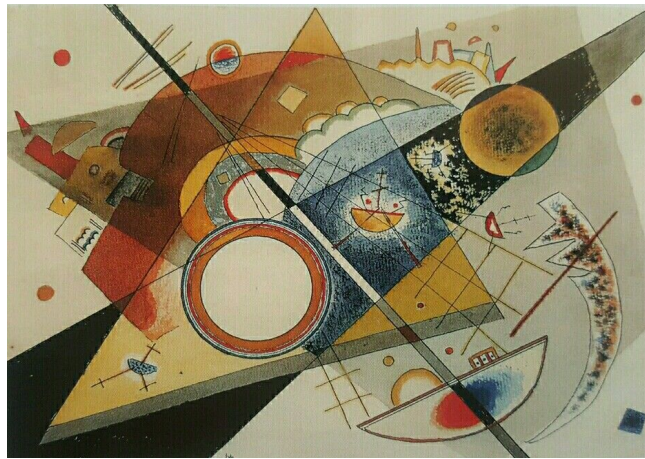
<그림 1> 마음속의 축제
출처: <http://blog.naver.com/misstwinkle/220605463468>
검색일: 2016. 01. 03



<그림 2> 여자들이 있는 부르나우의 거리
출처: <http://blog.naver.com/riverhot/90005361422>
검색일: 2016. 01. 04.



<그림 3> 에드윈
캠벨을 위한 패널 No. 4
출처: <http://blog.daum.net/garbar/15828478>
검색일: 2016. 01. 07.



<그림 4> 무제
출처: 김광우(2015), p.247.



<그림 5> 작은세계4
출처: 김광우(2015), p.245.



<그림 6> 상호 동의
출처: [http://terms.naver.com/entry.nhn?
docId=974872&cid=46720&categoryId=46863](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74872&cid=46720&categoryId=46863)
검색일: 2016. 01. 09.

2. 바디아트

1) 바디아트의 개념 및 기원

바디아트는 바디와 아트의 합성어로 신체를 표현대상(Canvas)으로 간주하여 각각의 표현 주제와 의도에 맞도록 색채와 디자인 요소 및 원리 등을 활용하여 표현하는 메이크업의 한 영역이다.³⁹⁾

바디아트는 작품 자체가 가지는 형식적 구조가 모더니즘이 지향하는 고정된 의미에 반하는 것으로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⁴⁰⁾의 구성 요소로써 정의되어 왔으며,⁴¹⁾ 인간의 몸을 대상으로 어떤 일정한 재료와 양식, 기교등을 사용하여 미를 창조하고 표현하는 인간의 활동이나 산물이다.⁴²⁾

인류의 태동과 함께 시작했던 바디아트는 고대 원시사회에서부터 문명이 극도로 발달한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본능적, 사회적 표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되어 왔다.⁴³⁾

바디아트는 원시 시대에 상흔, 문신, 채색, 제거, 변형 등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얼굴과 몸에 물감을 칠하거나 염색하여 장식미를 추구하는 예술에서 시작되며,⁴⁴⁾ 넓게는 행동 미술(Behaviour art)과 동일시 할 수 있다. 행동 미술은 개념미술에서 시작된 것으로, 육체의 운동 변화의 여러 조건을 나타냄으로써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각 순간의 변화를 사실로 본다.⁴⁵⁾

39) 오인영 외2인(2010). “아트메이크업 디자인”, 서울: 훈민사, p.29.

40)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 1960년에 일어난 문화운동이면서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영역과 관련되는 한 시대의 이념.

41) 김연아(2015), “바디아트퍼포먼스와 메블로폰티 몸 현상학의 상호작용 관계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7-8.

42) 김유성·홍세원(2005). “바디아트에 나타난 타이포그래피 표현에 관한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11(2), pp.160-169.

43) 김연아(2015). op.cit., p.10.

44) 김현진(2014). “미메시스 개념을 응용한 바디아트 표현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33.

45) 태동숙(2011). “투명성을 응용한 바디아트 표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29.

바디아트의 원래 목적은 신체에 짐승의 기름을 발라 추위를 견디기 위해 사용 하였으며,⁴⁶⁾ 인류가 살아가면서 생존을 목적으로 행한 여러 행위 중 하나이며 원시적인 바디페인팅을 그 목적에 따라 적이나 맹수로부터 신체보호 수단, 계급이나 신성함을 나타내는 수단, 주술적(종교적) 행위, 타 부족과 자신의 부족 구별하는 수단으로 구분하였다.⁴⁷⁾

이와 같이 바디아트의 기원은 힘, 용기, 능력과 부를 과시하고자 하는 트로피즘(Trophyism), 상대에게 위압감을 주기 위한 테러리즘(Terrorsim), 액운을 물리치고 행운을 바라는 토테미즘(Totemmism) 등으로 보는 것이다.⁴⁸⁾

바디아트는 문신이나 가면의 형식을 통해 오래전부터 인류 역사와 함께 지속되어 온 문화로 신체에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미지를 형상화 하는 의식화된 행위이자 표현양식이며 예술과 인간의 조화된 독창적 예술이다.⁴⁹⁾ 이와 같이 신체를 통한 자아표현은 시대가 지날수록 더욱 세련되어졌을 뿐 아니라, 그 시대의 예술적 표현물로서 오늘날까지 전 세계에 산재되어 남아있다.⁵⁰⁾

바디아트의 표현 범위는 전신에 해당되며 인체의 근육 및 골격 구조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고, 조형적 요소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인간의 끊임없는 미적 욕구 의식과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종합예술로 자리 잡게 되었다.⁵¹⁾

1960년대에 마틴 리트(Martin Ritt, 1914~1990)⁵²⁾에 의해 현대적 미술로 표현되기 시작한⁵³⁾ 바디아트는 아티스트의 예술성이 유감없이 발휘되는 장

46) 양진희 외4인(2005). “*Make up Design*”, 서울: 광문각, p.14.

47) 강대영(2003). “*한국분장예술*”, 서울: 지인당, p.255.

48) 김보연(2015). “*크레이그 오웬스의 알레고리 이론에 따른 바디아트 작품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디자인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0.

49) 천지연 외5인(2013). “*Art & Character Make up*”, 서울: 청구문화사, p.35.

50) 한명숙(2005). “*바디아트에 나타난 메이크업의 포스트모더니즘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0.

51) 오인영 외2인(2010). op.cit., p.19.

52) 마틴 리트(Martin Ritt, 1914~990): 감독, 제작자, 드라마와 다큐 드라마 제작 등 다방면에서 활동한 브로드웨이 배우 출신의 미국 감독.

르로서, 인체를 형상화시켜 재구성하는 것으로 모델과 관중, 음악, 무대와 조명 등이 전체적인 조화가 이루어질 때 완성되는 종합 예술이다.⁵⁴⁾

바디아트는 다양한 소재를 이용하여 신체에 표현함으로써 예술성을 추구하며 표현상의 어떠한 구속도 받지 않는 실험적인 조형예술로⁵⁵⁾ 최근에는 각종 업체의 광고와 홍보 및 컬렉션이나 이벤트 퍼포먼스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⁵⁶⁾

2) 바디아트의 이미지 표현기법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자 김연아⁵⁷⁾와 최경옥⁵⁸⁾의 논문을 바탕으로 바디아트의 표현 기법을 회화적 기법, 에어브러시 기법, 오브제 기법, 3D 디지털 기법, 텍스처 기법, UV 블랙라이트 기법으로 분류 하였다.

(1) 회화적 기법

회화적 기법은 인체를 캔버스 삼아 주로 자연물과 같은 어떤 대상을 형상화 시키고 정밀묘사 기법, 우연적 기법 등의 요소를 이용하여 주제에 따른 메시지를 전달,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⁵⁹⁾

회화적 기법은 옷의 질감이나 신체에 의하여 생기는 굴곡, 무늬 접힘 등을 회화적으로 표현하여 인체에 의상을 표현하기도 하며,⁶⁰⁾ 평면상에 형상

53) 강민정(2006), “패션 누드에 나타난 바디페인팅의 특성”, 숙명여자대학교 특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7.

54) 김양은 외 3인(2009). “ART Make-up”, 경기: 광문각, p.113.

55) 천지연 외 5인(2013). op.cit., p.18.

56) 강경화(2009). “Make you up”, 서울: 국제, p.234.

57) 김연아(2015). “바디아트퍼포먼스와 메트로폰티 몸 현상학의 상호작용 관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58) 최경옥(2009). “아르누보 문양 이미지를 응용한 바디 아트 연구 : 바디페인팅 작품 제작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59) 김연아(2015). op.cit., p.11.

60) 강대영(2003). op.cit., p.274.

을 그려낸 듯한 착각을 일으켜 실제의 이미지와 같은 느낌처럼 표현되기도 한다.⁶¹⁾

이외에 회화적 기법으로 표현한 바디페인팅 에서는 <그림 7>과 같이 자연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주제로 인체에 표현한 작품들을 많이 볼 수 있다.

(2) 에어브러시 기법

에어브러시 기법은 전용물감과 에어브러시 건을 갖추고 공기 압축기인 콤팩프레셔를 이용하여 공기를 압축한 후 건으로 불어내어 물감을 분사함으로써 우연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방법이다.⁶²⁾

에어브러시 기법의 가장 큰 장점은 <그림 8>과 같이 밝음과 어두움을 부드럽게 연결하는 그라데이션 표현시에 유용하다는 점이다.⁶³⁾

에어브러시 기법은 손으로 페인팅 하는 것에 비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다양한 모양의 판을 피부에 부착시킨 후 에어브러시를 사용하면 스텐실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최근 바디페인팅 작업 시 에어브러시의 사용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⁶⁴⁾

(3) 오브제 기법

라틴어 ‘오브젝툼(Objectum)’이 어원인 오브제(Objet)는 영어의 오브젝트(Object)와 같은 뜻으로 ‘물체 또는 객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⁶⁵⁾

미술에서의 오브제는, 물건을 본래의 용도에서 분리하여 작품에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느낌을 일으키는 상징적 기능의 물체를 이르는 말로⁶⁶⁾ 다양한

61) 김양은 외3(2009). op.cit., p.119.

62) 강대영(2003). op.cit., p.272.

63) The Academy of Freelance Makeup. 정연자·신세영 역(2015), “MAKEUP IS ART: 오리지널 모습을 창조하기 위한 전문적 테크닉”, 경기: 교문사.

64) 최경옥(2009). op.cit., p.45.

65) 김동호(2006). “현대미술에 있어서 혼용된 오브제와 하이브리드 오브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6.

66) 한명숙 외 2인(2006). “The Body Art”, 서울: 청구문화사, p28.

재료를 작품에 부착하여 새롭고 독특한 이미지를 연출한다.⁶⁷⁾

오브제 기법은 미술작품에서도 물감이외에도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 표현하거나 설치를 통해 작업을 하듯이 바디아트에서도 <그림 9>와 같이 조형물을 이용해 신체와 하나의 작품으로 보이도록 한다.

이와 같이 오브제 기법은 신체에 해가 되지 않는 재료를 부착하여 연출함으로써 풍부한 표현의 효과를 주면서 새로운 흥미를 유발한다.⁶⁸⁾

(4) 3D 디지털 기법

3D 디지털 기법은 아이디어 발상 및 표현을 인체에 3차원 모델링 기술을 통한 시뮬레이션, CAD, 등 다양한 디자인 도구를 활용하여 다양한 문양이나 글씨와 같은 이미지를 디자인한 후⁶⁹⁾ 인체에 3차원의 컴퓨터 그래픽 이미지를 창출하는 것이다.⁷⁰⁾

이러한 기법은 컴퓨터 기술을 이용해 인체에 간접적으로 바디페인팅을 실현하고 디자인과 모티브 모두 디지털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기법에 비해 표현 범위가 폭넓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그림 10).⁷¹⁾

(5) 텍스처 기법

텍스처 기법은 물체 표면에서 느껴지는 물체 고유의 촉감인 질감을 표현하는 기법을 말한다.

질감 표현은 물체가 가지고 있거나 인위적으로 만들어 낸 표면적인 성격이나 특징을 말하며, 재료를 이용한 표면 효과로 형태, 색채와 함께 시각적

67) 김양은 외 3인(2009). op.cit., p.104.

68) 공영희(2007). “구스타프 클림트의 회화 작품을 응용한 바디 아트(Body Art)에 관한 연구 : 바디 페인팅 작품 제작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8.

69) 김연아(2015). op.cit., p.15.

70) 박철신(2008). “디지털 아트 디지털 페인팅”, 서울: 한언, p.16.

71) 김효진(2015). “사이키델릭의 특성을 응용한 바디아트 제작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디자인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인 경험을 풍부하게 해주는 것으로 작품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⁷²⁾

텍스처 기법은 석고나 머드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피부에 도포한 후 완전히 건조시켜 온도 차이로 인하여 피부 사이사이로 갈라지는 효과를 얻어 매트한 질감으로도 표현도 할 수 있다(그림 11).⁷³⁾

이와 같이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 자연물은 모두 바디페인팅의 재료가 될 수 있으며,⁷⁴⁾ 바디아트에서의 텍스처 기법은 이질적인 질감을 표현함으로써 소재의 한계성을 탈피하고 비일상적인 패턴이나 장식을 과감히 도입한다.⁷⁵⁾

(6) UV블랙라이트 기법

UV블랙라이트 기법은 바디 페인팅 물감과 빛을 결합한 과학적 기법으로 UV라이트에 반응하는 야광물질인 UV물감을 사용해 어두운 곳에서 독특한 느낌을 살리고 UV라이트 조명아래에서 선명한 색상으로 발광케 하는 기법이다(그림 12).⁷⁶⁾

UV물감은 일반조명에서는 불투명하게 보이지만 블랙라이트에서는 선명한 색상을 발광하며 투명한 불빛으로 보여 진다.⁷⁷⁾ 이러한 특성으로 UV물감과 일반물감을 적절히 사용하여⁷⁸⁾ 인체가 아닌 허공이나 평면상의 캔버스에 그림이 있는 것처럼 연출되기도 한다.

72) 이화순 외4인(2010). *"The Art of Makeup"*, 서울: 형설출판사, p.32.

73) Ibid., p.33.

74) 강대영(2003). op.cit., p.276.

75) 양진희 외 4인(2005). op.cit., p.191.

76) 강민정(2006). op.cit., p.16.

77) 최경옥(2009). op.cit., p.44.

78) 김유승(2015). "광고 제작을 위한 바디페인팅과 패션의 콜라보레이션 작품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4.



<그림 7> 회화적 기법
출처: <http://www.pondly.com/2011/05/body-painting-by-cr-aig-tracy/>
검색일 : 2016. 01. 14.



<그림 8> 에어브러시 기법
출처: <http://www.ilovebodyart.com/albert-greis-bodypainting-studio-germany/>
검색일 : 2016. 01. 17.



<그림 9> 오브제 기법
출처: <http://ffffound.com/image/1532af1091cf4a7520823d1530a712289e129d9c>
검색일 : 2016. 01. 22.



<그림 10> 3D 디지털 기법
출처: <https://www.facebook.com/lovebodyart/photos/a.560090257397887.1073741829.559554830784763/798561946884049/?type=3&theater>
검색일: 2016. 01. 25.



<그림 11> 텍스처 기법
출처: <http://www.koreabodypainting.com>
검색일: 2016. 01. 26.



<그림 12> UV 블랙라이트 기법
출처: <http://www.ilovebodyart.com/biomechanical-miguel-angel-body-painter-colombia>
검색일 : 2016. 02. 01.

3. 칸딘스키 작품의 조형요소

본 연구 에서는, 칸딘스키 작품에 나타난 조형요소를 알고자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분류하고자 한다.

이은미·이강희⁷⁹⁾의 연구에서는 조형요소를 선, 각, 원, 색 으로 분류하고, 배미영⁸⁰⁾의 연구에서는 조형이론으로 점, 선, 면으로 분류하였다. 김화성⁸¹⁾의 연구에서는 점, 선, 면, 형태, 색채로 조형요소를 구분하였고, 홍종숙⁸²⁾과 조민형⁸³⁾의 연구에서는 점, 선, 면, 색채로 조형요소를 분류 하였다. 신화정⁸⁴⁾의 연구에서는 칸딘스키 작품의 조형적 특성에서 형태와 색채로 조형요소를 소분류 하였다.

본 장 에서는 위의 선행연구와 같이 칸딘스키 작품의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칸딘스키의 작품에 나타난 조형요소를 점, 선, 면, 형태, 색채로 분류하여 조사 하고자 한다.

1) 점

사전적 의미의 점은 작고 둥글게 찍은 표, 모든 도형의 궁극적 구성 요소인 가장 단순한 도형으로서 위치만 있고 크기가 없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으며,⁸⁵⁾ 칸딘스키는 점을 ‘모든 창조의 근원이자 시작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79) 이은미·이강희(2015). “칸딘스키의 추상화를 이해하는 퍼지 전문가 시스템 연구 -언어 변수와 퍼지 집합을 중심으로-”, 기초조형연구, 16(3), pp.441-450.

80) 배미영(2010). “칸딘스키 조형이론과 작품분석을 통한 색채특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1) 김화성(2007). “칸딘스키 회화의 조형적 특성 연구”,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2) 홍종숙(1997). “칸딘스키 회화에 나타난 색채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3) 조민형(2012). “칸딘스키 조형요소 및 색채반영에 의한 쇤베르크 <달에 홀린 피에로>의 표현주의 고찰”,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84) 신화정(2015).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작품의 조형적 요소를 응용한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5) 점, 네이버 국어사전,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33389500>, 2016. 01. 16. 검색).

본질'로 그의 저서에서는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인 것으로 정의하였다.⁸⁶⁾

점은 하나의 조그만 세계로 사방으로부터 동일하게 떨어져 있으며, 주변으로부터 거의 빠져나와 있고 그 위치에서 확고히 자신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며, 물질로 나타낼 때 주변과의 윤곽선을 가지고 있으며 이때의 점은 일반적으로 작기는 하지만 하나의 형태인 것이다.⁸⁷⁾

회화에 있어서 점의 외적인 개념은 정확하지 않으며, 물질화되어 눈에 보이는 점은 평면에서 일정한 면을 요구하는 어떤 크기를 얻어야 한다. 점은 이러한 의미에서 가장 작은 원으로 정의할 수 있다.⁸⁸⁾

<그림 13>의 “심사가 없는 전시를 위한 벽화 디자인 벽B”와 같이 칸딘스키의 작품에는 원형이 자주 등장 한다. 이 그림 에서는 ‘점’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는 동시에 건축물을 수용하는 회화를 실현한 것으로 벽화를 위한 초안 제작에서 무엇보다도 전체의 골격이 하나의 통일감을 갖도록 설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⁸⁹⁾

칸딘스키는 1923년에 빌 그로만(Will Grohmann, 1887~1968)⁹⁰⁾에게 보낸 편지에서 원형에 매료된 이유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긴장을 주는 단일한 모양이며, 대단히 상반되는 것들의 통합이 균형을 이루기 때문’ 이라고 언급 하였다.⁹¹⁾

칸딘스키는 원을 가장 겸양하는 형태이면서도 자기주장도 하고 있는 형태 라고 하였고, 원은 간결한 반면 무한히 변화하고 안정되어 있음과 동시에 불안정 하기도하여 무수한 긴장을 갖고 있는 하나의 결정체라고 하였다.⁹²⁾

86) 신화정(2015). op.cit., p.23.

87) 이경숙(2012). op.cit., pp.361-375.

88) 방경란(2004). “미술치료모델로서의 작품분석연구 -칸딘스키작품을 중심으로-”, *디자인학 연구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sign Science*, 17(2). pp.383-392.

89) 김광우(2015). op.cit., p.243.

90) 빌 그로만(Will Grohmann, 1887~1968): 독일의 미술가이자 미술 비평가로 작센의 바우첸에서 출생 하여 베를린에서 사망하였다. 드레스 덴 및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오리엔트학, 미술사를 배웠으며 독일 표현주의 화가들에 대한 평가를 정착시키는 구실을 하였다.

91) 김광우(2015). op.cit., p.251.

92) 이은미·이강희(2015). op.cit., pp.441-450.

2) 선

사전에서의 ‘선’은 ‘그어 놓은 금이나 줄, 물체의 윤곽을 이루는 부분’⁹³⁾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칸딘스키의 저서에서는 점이 움직여 나간 흔적이라 정의되어 있다. 선은 자체 내에 완전히 폐쇄된 휴식이 파괴됨으로써 생겨난 것으로, 이때 정적인 것이 역동적인 것으로 비약하게 된다. 이와 같이 선은 회화의 원천적인 요소인 ‘점’에 대해서 최대의 대립 관계에 있다. 정확히 말해 선은 제 이차적인 요소라 표시할 수 있다.⁹⁴⁾

선은 무한한 다양성과 암시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선은 움직임의 가능성을 무한히 지닌 가장 간결한 형태로써 그 자체로도 충분한 운동이나 방향의 힘을 표출한다.⁹⁵⁾

선의 표현을 대표하는 <그림 14> “느슨함 속의 딱딱함”에서는 서로 상이한 방향으로 반듯하게 계속 뻗어나가며, 차고 무한한 움직임의 가능성에서 가장 간결한 형태인 수평선과, 따뜻하고 무한한 움직임의 가능성에서 가장 간결한 형태인 수직선이 주로 표현된다.⁹⁶⁾

<그림 15>의 “결합”은 직선을 주로 사용하여 힘차고 간결한 구성적인 표현을 보이고 있으며, 굵은 수직선이 화면을 가로지르고 있다. 화면을 구성하는 수직선과 수평선은 밝고 어두움의 대립으로 평온상태를 나타내고 있다.⁹⁷⁾ 이 그림은 직선이 잘 계산되어진 구성이며 직선들이 유기적으로 교차하여 하나의 구조를 얻고 있는 색다른 부류의 작품이다.⁹⁸⁾

칸딘스키는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하나의 힘이 어떤 한 방향으로 점을 움

93) 선, 네이버 국어사전,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20982000>, 2016. 01. 02. 검색).

94) W.칸딘스키. 차봉희 역(2015), *점·선·면 - 회화적인 요소의 분석을 위하여*, 경기: 열화당, p.47.

95) 이경숙(2012). op.cit., pp.361-375.

96) 김화성(2007). op.cit., p.16.

97) 배미영(2010). op.cit., p.64.

98) 심문섭(2012). *서양의미술12*, 경기: 서문당, p.42. op.cit., p.42.

직이게 하면서 생기는 2차적인 유형이 직선이라 하였으며, 고정된 방향은 변하지 않고 직선에 대해 긴장상태에서 무한한 움직임으로 가능성을 지닌 가장 간결한 형태라 정의하였다.⁹⁹⁾

3) 면

사전적 의미의 ‘면’은 ‘입체의 평면이나 표면, 사물의 겉으로 드러난 쪽의 평평한 바닥’¹⁰⁰⁾으로 정의한 반면, 칸딘스키는 면에 있어서는 도식적인 기초 평면에 한정쳐 기초평면¹⁰¹⁾을 이루는 요소들의 내적 성격이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았다.¹⁰²⁾

칸딘스키의 저서 “점, 선, 면”에 의하면 기초평면이란 원초적요소가 발생한 선이 자체활동의 연장으로 생성된 것으로 작품의 내용을 담는 물질적인 면이라 하였다.¹⁰³⁾ 또한, 한 면 안에서도 방향에 따라 문학적 풀이를 하였는데, 위는 하늘을, 왼쪽은 먼 곳을, 오른쪽은 집을, 아래쪽은 땅을 뜻한다고 하였다.¹⁰⁴⁾

칸딘스키의 작품 중 면적인 요소가 반영된 <그림 16>의 “어둠 속으로”는 1928년 극장에 무대장식으로 사용되었던 그림이다.

“어둠 속으로”는 배경들로부터 삼각형 이라는 면의 형태를 구분하기 위하여 선을 그리고 채색하는 방법이 아닌 면의 스텐실을 제작하여 스프레이로 물감을 뿌리는 스텐실기법을 사용하였다.¹⁰⁵⁾

이 그림은 제목에서 나타나듯이 배경색에서 명도차이를 볼 수 있다. 이는

99) 변지은(2016). “칸딘스키 회화에 나타난 의사소통적인 색채심리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예술디자인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4.

100) 면, 네이버 국어사전,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13350600>, 2016. 01. 02검색)

101) 기초평면: 작품의 내용을 수용하는 물질적 평면.

102) 이경숙(2012). op.cit., pp.361-375.

103) 칸딘스키. 차봉희 역(2015), op.cit., p104.

104) Ibid., p.110.

105) 김광우(2015). op.cit., p.335.

칸딘스키의 제작 의도는 어둠으로 향한 경향이지만 역동적인 것이 아니고 정적이고 경직된 형태인 것이다.¹⁰⁶⁾ 그러므로, 이 그림에서의 역동성은 색이 아니라 어둠으로 향하고 있는 삼각형의 연속인 것이다.

기초평면 즉 정방형, 삼각형, 원 들은 화면 중간에 표시 될 때 내적 감동의 울림과 함께 긴장, 중량감, 저항감 등이 복합되어 화면 공간 안에서 어떤 면이든 간에 개성인 고유의 목소리와 내적인 색채를 띠는 평면을 이루는 것이다(그림 17).¹⁰⁷⁾

칸딘스키의 도시적인 기초평면은 수평선과 두 개의 수직선에 의해서 한계지어지고, 이렇게 구획됨으로써 그 주변 영역에서 자립적인 본질로 표현되고 있다고 하였다.¹⁰⁸⁾ 이와 같이 칸딘스키는 평면을 살아있는 대상으로 여기고 다룰 수 있을 때 적절한 조형 형태가 나타난다고 말하였다.

4) 색채

눈은 물체의 표면으로 발산되는 시각적인 빛의 파장의 반작용으로 색을 인식 하였다. 색은 각기 다른 파장을 갖고 물리적인 사물의 외관을 변화하는 착시현상을 만드는 것으로 감각표현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¹⁰⁹⁾

색은 무엇인가를 표현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고유의 성격을 조화나 변화를 통해 예술적 표현을 이루고 감각적인 이미지전달을 할 수 있다.¹¹⁰⁾ 색채를 경험 한다는 것은 색상 자체를 보는 것 이외에 그 모양과 함께 촉각적, 미각적, 청각적, 후각적으로 느끼고 지각하는 것이다.¹¹¹⁾

106) 정재찬(2015). “이상과 칸딘스키의 상호텍스트성 탐구 -<권태>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46(0), pp. 53-80.

107) 김화성(2007). op.cit., p.20.

108) 변지은(2016). op.cit., p.38.

109) 이화순 외 4인(2010). op.cit., p.28.

110) 천지연 외5인(2013). op.cit., p.51.

111) 김미옥(2015). “바실리 칸딘스키 회화와 조형이론”, *조형 미디어학*, 18(1), pp.13-20.

칸딘스키는 어려서부터 색채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형태와 마찬가지로 색채의 정신적인 특성도 강조하였다.¹¹²⁾ 칸딘스키에게 있어 색채는 활발하게 논의되던 광학의 입장에서의 물리적 분석 대상이 아니라 공간, 정취, 운동 등에 공헌하는 것으로 심리적, 정신적인 것을 표현해낼 수 있는 신비한 요소였다.¹¹³⁾ 칸딘스키는 많은 색채 이론을 포괄적으로 수용하여 체계화 시킨 본인만의 이론으로 러시아의 이콘(Icon)¹¹⁴⁾과 요한 볼프강 폰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 1749~1832)¹¹⁵⁾의 색채학, 신지학에 큰 영향을 받았다.¹¹⁶⁾ 칸딘스키는 색채는 독자적으로 존립할 수도, 무제한으로 확장될 수 없지만, 색채가 물질적인 유기체로서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아울러 색채와의 감수성에 나타난 심리적 효과로 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¹¹⁷⁾

칸딘스키는 가장 대립적인 색채배치, 즉 한난대비, 명도대비, 보색대비로 판조자에게 강조 하였다. <그림 18>의 “검은”은 강한 대립을 일으키는 색채들이 배치되어 있으며, 색채들의 강한 대립으로 생기는 긴장을 종합하여 완벽한 조화로 승화시켰다.¹¹⁸⁾

칸딘스키는 색의 특정 활동, 병렬, 혼합, 변형 등에 관하여 분석하며 ‘내적 필연성’을 증명하였고, 기본 원색을 전통적인 개념인 노랑, 빨강, 파랑 3원색을 채택하여 이 세 가지 색상이 없는 작품은 조화가 없다고 생각하였다.¹¹⁹⁾

112) 신화정(2015). op.cit., p.28.

113) 노영덕(2003). op.cit., pp.137-164.

114) 이콘(Icon): 주로 동방교회에서 발달한 예배용 화상, 명칭은 ‘상(像)’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이콘에서 유래한다. 일종의 템페라 화법에 의한 판화의 형식에 가장 많고, 큰 것은 성당의 이코노스타시스에 거는 것으로부터 작은 것은 가정용까지를 포함하며 때로는 모자이크, 에마유, 직물을 사용한 것도 있고 상아(象牙), 판, 금속판의 부조도 있다.

115) 요한 볼프강 폰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 1749~1832): 독일의 시인·극작가·정치가·과학자. 세계적인 문학가이며 자연연구가이다. 바이마르 공국(公國)의 재상으로도 활약하였다.

116) 변지은(2016). op.cit., p.20.

117) 차중순(2002). “칸딘스키 추상회화의 내적 표현과 동향적 조형세계의 상관성”, *역사와 사회*, 29(0), pp.31-52.

118) 박경화·권수애(1998). op.cit., pp.65-79.

<그림 19>의 “노랑·빨강·파랑”은 색의 삼원색을 기본으로 하여 파생되는 녹색, 분홍, 초록, 보라 등을 캔버스에 표현한 작품으로 색채에 대한 연구결과라는 평가를 듣는 작품이다.¹²⁰⁾ 이 작품에서 칸딘스키는 푸른색을 원, 붉은색을 사각형, 노란색을 삼각형에 대입시켜 주제와 색의 일치를 시도 하였는데, 이 작품에서 푸른색을 완전한 원의 형태로 표현하고 있는 것 또한, 그러한 이유이다.¹²¹⁾

칸딘스키의 색채이론은 교수 재직 당시 학생들에게 많은 실험을 유도하였고, 현대의 기술과 과학지식 습득이야말로 힘과 같은 예술의 역할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색채현상과 원칙을 깨닫고 스스로 결론에 도달하게 함으로써 바우하우스 기초 색채 교육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¹²²⁾

또한 칸딘스키의 작품에서는 “하늘 색”과 같이 푸른 계열 색상이 작품 안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나(그림 20), 제목에서 파랑을 강조한 것을 볼 수 있다(그림 21). 이는 푸른색은 칸딘스키에게 궁극적으로 순수와 초자연성을 깨닫게 하였기 때문이다.¹²³⁾

이와 같이 칸딘스키가 가장 강조한 요소는 색채였으며, 색채는 깊은곳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물리적이면서 심리적인 효과를 주며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마저 일깨워 준다고 하였고, 보이는 시각과 더불어 감수성에 호소하는 것 보다 관객의 영혼에 호소하는 것이라고 하였다.¹²⁴⁾

119) 신화정(2015). op.cit., p.28.

120) 노랑·빨강·파랑 [Jaune-rouge-bleu]. 네이버 지식백과 미술작품,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74873&cid=46720&categoryId=46863>, 2016. 02. 15. 검색).

121) 김숙경(2006). op.cit., p.72.

122) 이해경(2012). “괴테의 색채이론으로 본 바우하우스 이론가들의 색채 성향 분석 -요하네스 이텐, 파울 클레, 칸딘스키, 라즐로 모홀리나기의 회화 중심으로-”, *한국과학 예술포럼*, 10(0), pp.33-47.

123) 지빌레 엔겔스·코르넬리아 트리슈베르거. 홍진경 역(2007), “칸딘스키와 청기사파”, 서울: 예경, p.33.

124) 김현화(1999). “20세기 미술사 : 추상미술의 창조와 발전”, 서울: 한길아트, p.41.

5) 형태

칸딘스키는 형태에 우주의 기쁨과 삶을 담고자 하였다. 형태는 각각의 내면세계를 가지며, 칸딘스키는 형태끼리의 조화가 발생시키는 미와 질서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125)

또한, 칸딘스키는 형태와 형태끼리의 균형과 각각 놓인 위치 변화에 따라 의미와 상징을 부여 하였으며 공간과 시간의 요소를 지니는 것이 형태라 하였고, 126) 형태의 균형은 기본적으로 릴리프(Relief, 부조) 127), 공간감과 차원을 형성해주는 조각의 텍스처와 재료탐구에서 비롯된다. 128)

칸딘스키는 신지학에 영향을 받아 ‘만물조용’과 ‘공간감’, ‘진동’등 고대 비학과 관련된 개념들을 공유 하였으며, 신지학적 세계관을 취한 칸딘스키는 인간의 영혼과 진동을 통하여 우주와 유기적 관계에 있으므로 진동을 매개로 우주로부터의 형이상학적이고 공간감적인 내용을 작품에 표현하였다. 129)

<그림 22>의 “구성8”에서는 삼각형과 원형이 각 3개씩 투명하게 겹쳐 사용되었고, 그 가운데 직사각형이 공간적 긴장감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130) 형태들이 조화롭게 교차하고 크고 작은 원형들은 대립적인 형태로 마치 공간에 올려 퍼지는 역동적인 리듬을 보여준다.

<그림 23>의 “꿈의 운동”의 형태는 에너지와 힘의 안정감을 보여주며 전체 구조의 과학적 시각과 공간 안에서의 자유로움 등이 총체적으로 뛰어난 조형성을 발휘한다. 131)

125) 강경림(2014). “칸딘스키회화의 표현적 특성을 활용한 경험의 심상표현 지도방안 연구”,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1.

126) Ibid., p.12.

127) 릴리프(Relief) : 돌을새김과 같은 말로, 글자나 그림 따위를 도드라지게 새기는 것을 말한다.

128) 차영미(2005). “구성주의에 나타난 추상적 표현요소를 이용한 작품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

129) 노영덕(2009). “추상미술의 미학적 이해 -칸딘스키의 경우와 몬드리안의 경우 비교-”, 기초조형학연구, 18(0), pp.95-105.

130) 김광우(2015). op.cit., p.253.

131) Ibid., p.252.

이와 같이 칸딘스키는 작품에서 평면적이고 장식적인 인상이 나타나지 않게 하기¹³²⁾ 위하여 색채와 형태의 중복 및 선의 강약과, 면 위에서의 형태들의 배치하여 삼차원적인 방법으로 공간성을 부여하였다(그림 24).

칸딘스키 작품에서 형태를 기하학적으로 구성한 것은, 기하학적 형태가 수학적 규율과 합리적 사고로 이루어진 것으로 가능한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성격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¹³³⁾ 칸딘스키의 작품에서 형태의 기하학적 구성은 예술의 전개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예술의 주요한 과제가 되었던 컨스트럭티비즘이 계기가 되어 이후 평면성을 해석하여 간결하고 명확한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다.¹³⁴⁾

<그림 25>의 “파란 활 모양”은 칸딘스키가 러시아를 떠나 독일에서 예술적 의견 차로 고립된 상태에서 그린 그림으로, 형태의 기하학적 구조에서 공격성이 느껴지며¹³⁵⁾ 형태의 기하학적 구성이 분명하게 나타난 작품이다.



<그림 13> 심사가 없는 전시를 위한 벽화 디자인 벽B
출처 : 김광우(2015), p.242.

132) 박경화·권수애(1998). op.cit., pp.65-79.

133) Ibid., p.29.

134) 심문섭(2012). op.cit., p.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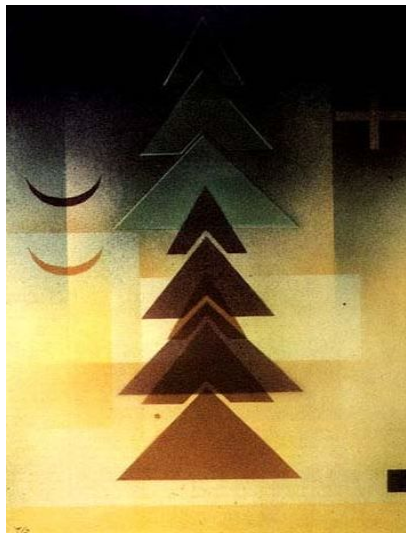
135) 칸딘스키 파란 활 모양. (<http://blog.naver.com/junghye7799/80100200625>, 2016. 03. 11.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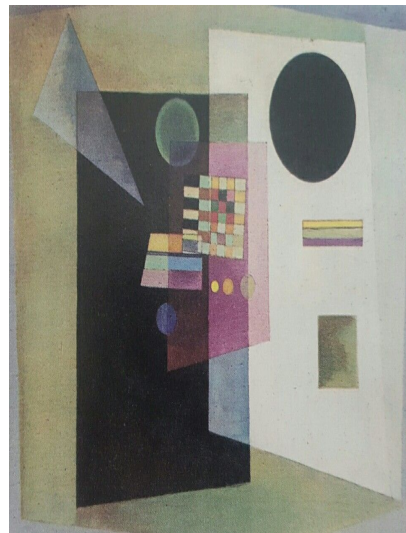
<그림 14> 느슨함 속의 딱딱함
출처: 김광우(2015), p.332.



<그림 15> 결합
출처: 심문섭(2012), p.43.



<그림 16> 어둠 속으로
출처: <http://blog.naver.com/kamjun/10136338685>
검색일: 2016. 02. 27.



<그림 17> 긍정
출처: 김숙경(2006), p.99.



<그림 18> 검은
출처: 심문섭(2012), p.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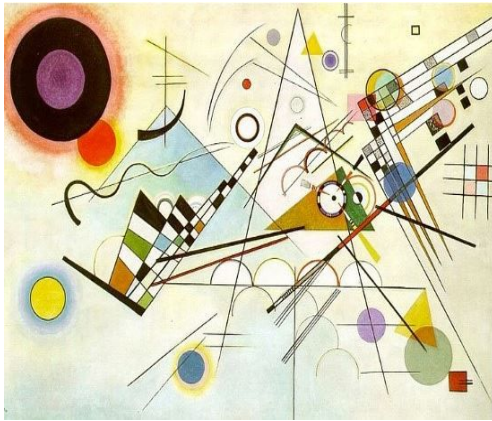
<그림 19> 노랑·빨강·파랑
출처: <http://blog.naver.com/ktv520/220707007370>
검색일 : 2016. 03. 06.



<그림 20> 하늘 색
출처: 심문섭(2012), p.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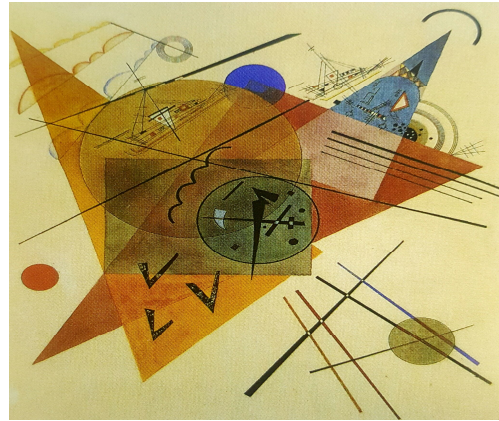


<그림 21> 파랑을 향하여
출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406890&cid=46720&categoryId=46863>.
검색일 : 2016. 03. 09.



<그림 22> 구성8

출처: <http://blog.naver.com/elletree/100141946438>
검색일: 2016. 03. 11.



<그림 23> 꿈의 운동

출처: 김광우(2015), p.252.



<그림 24> 흰색 위에

출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74876&cid=46720&categoryId=46863>
검색일: 2016. 03. 12.



<그림 25> 파란 활 모양

출처: http://blog.naver.com/eun_de72/130084245169
검색일: 2016. 03. 15.

Ⅲ. 작품 제작

1. 작품 제작의도 및 디자인계획

본 연구는 컨스트럭티비즘 이후 칸딘스키 작품의 조형요소를 점, 선, 면, 색채, 형태로 분류하였고, 조형요소를 상징하는 작품 6점을 선점하여 응용하여 바디아트로 표현하고자 한다. 선점된 작품 일부의 구성요소를 재해석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표현하여 바디아트의 회화적 기법과 에어브러시 기법으로 작품을 제작하였다.

작품의 디자인은 본 연구에서 분석한 컨스트럭티비즘 이후에 칸딘스키 작품에서 보여진 조형요소를 응용하여 재구성 하였다. 조형요소중 ‘점’을 상징하는 1작품, ‘선’을 상징하는 2작품, ‘면’을 상징하는 1작품, 색채를 상징하는 1작품, ‘형태’를 상징하는 1작품을 선정하고 재해석하여 총 6점의 바디아트 작품을 계획하였다.

첫 번째 작품은 구성요소 중 ‘점’을 상징하는 작품 “심사가 없는 전시를 위한 벽화 디자인 벽B”을 모티브로 하여 응용하고 바디아트를 제작하였다. 이 그림에 나타나 있는 수많은 점들 중 우측에 있는 점의 집단과, 그 점들을 가르고 있는 선을 모티브로 하여 그림을 재해석하고 인체의 상반신 전면을 캔버스화 하여 디자인 하고, 전체의 골격이 하나의 통일감을 갖도록 구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선을 상징하는 작품은 평행선, 대각선을 상징하는 두 점을 선정하고 응용하여 바디아트를 제작 하였다.

두 번째 작품은 선을 상징하는 작품 중 “결합”을 응용한 작품으로 면의 분할과, 운동방향의 힘을 표출하고자 움직임의 가능성을 지닌 대각선을 모

티프로 하여 디자인하고 바디아트로 제작 하였다.

세 번째 작품은 선을 상징하는 두 작품 중 “느슨함 속의 딱딱함”을 응용한 작품으로, 반복적인 평행선과 이를 수직 교차하는 선으로 구성에 긴장감 나타나도록 디자인하였다.

네 번째 작품은 면을 상징하는 작품 “어둠 속으로”에서 나타난 삼각형 방향을 모티브로 응용하여 역동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고, 바디아트를 제작하였다.

다섯 번째 작품은 색채를 상징하는 작품 “노랑·빨강·파랑”을 응용하여 바디아트로 제작 하였다. 삼원색 위에 나타나 있는 기하학적 구성요소를 모티브로 하여 삼원색과 삼원색에서 파생되는 색들로 구성하여 디자인 하였다.

여섯 번째 작품은 형태를 상징하는 “파란 활 모양”을 응용하고 활모양을 상징하는 형태와 구성요소들을 모티브로 하여 바디아트로 제작 하였다.

작품에 사용된 재료는 인체용 수성 물감인 아쿠아컬러를 기본으로 디자인 의도에 맞게 파운데이션, 에어브러시, 인조속눈썹 등의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칸딘스키 작품에 나타난 조형요소를 응용한 바디아트 디자인을 정리하자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칸딘스키 작품을 재해석한 작품 디자인 계획.

구분 분류	작품사진	모티브	디자인 스케치	색채
점				
선 I				
선 II				
면				
색채				
형태				

2. 작품제작

1) 작품 I

(1) 디자인 의도

<그림 26>은 칸딘스키 작품의 조형요소 중 ‘점’을 상징하는 작품으로 “심사가 없는 전시를 위한 벽화 디자인 벽B”를 응용하여 디자인하고 에어브러시 기법으로 바디아트를 제작하였다.

이 작품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는 동시에 건축물을 수용하는 회화를 실현하고자 하였던 칸딘스키와 같이, 인체와의 통일감을 위하여 상반신 좌, 우에 다양한 색의 점을 그려 전체의 골격이 하나의 통일감을 갖도록 하였다.

칸딘스키의 그림에서 균형에 사용된 좌, 우의 점들 중 우측 점의 집단과 그 점들을 가르고 있는 선을 모티브로 하여 <표 3>의 디자인 스케치와 같이 응용하여 표현하였다.

칸딘스키의 “심사가 없는 전시를 위한 벽화 디자인 벽B”와 유사하도록 점과, 점들을 가르고 있는 선의 위치는 칸딘스키의 그림과 동일하게 인체에 적용하였고, 바탕색이 검정인 만큼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네온컬러로 표현하였다.

작품 I 은 채도변화를 통하여 명확성이 강조되도록 재구성 하였고, 바디아트 표현 기법 중 에어브러시 기법을 통하여 완전한 원형을 표현함으로써 점을 강조 하여 바디아트로 제작 하였다.

(2) 제작 방법

① 바디페인팅용 언더웨어를 모델에게 입히고 마스킹 테이프를 사용하여 선이 표현될 곳과 사각형이 표현될 곳을 가린 후 이외의 공간에 전체적인

균형을 고려하여 점을 디자인 한다.

② 고체 수성물감을 사용하여 상반신 전체에 검정색으로 페인팅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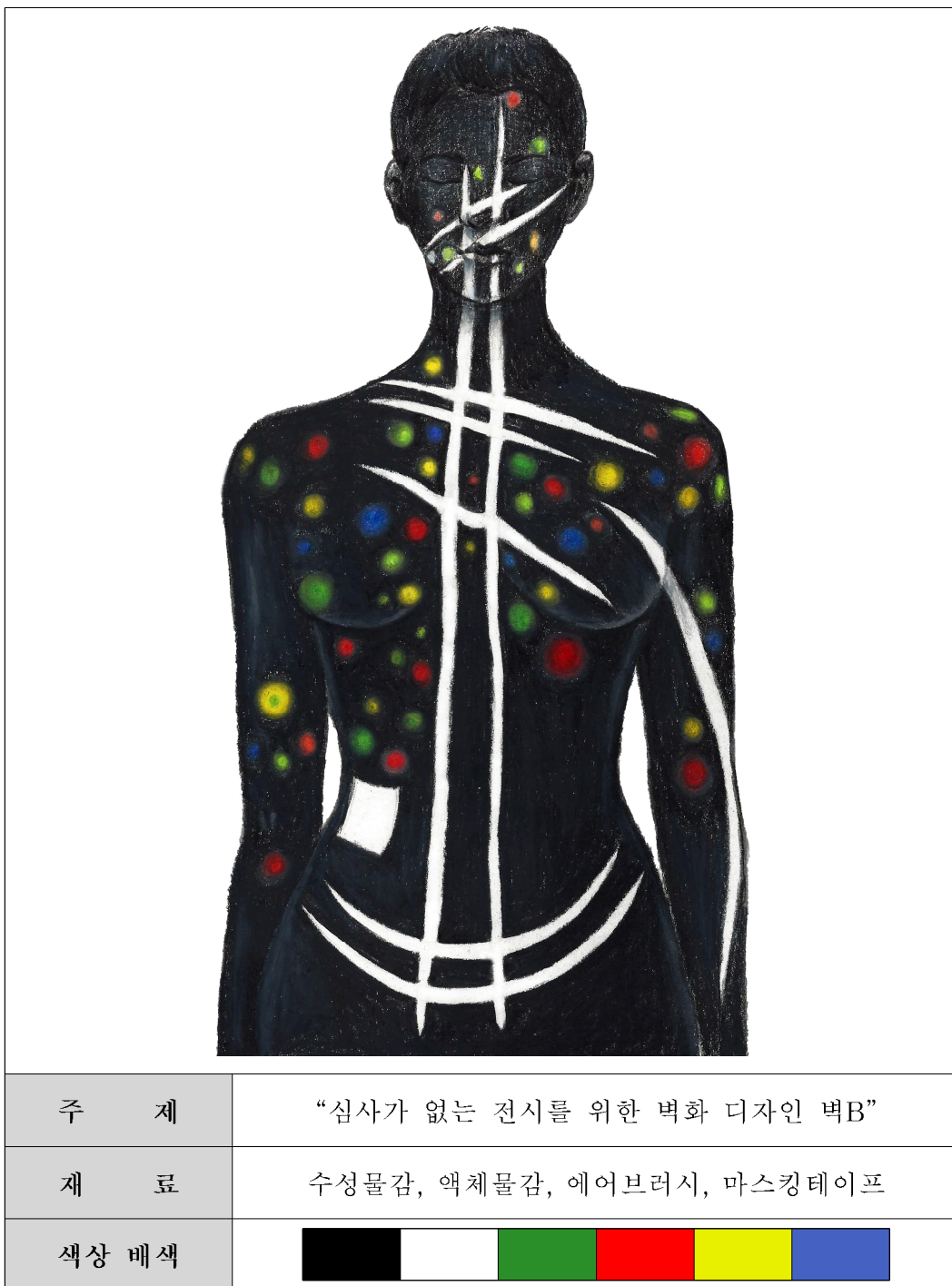
③ 검정 몸 위에 명확한 색상 표현을 위하여 흰색 액상물감을 사용하여 에어브러시에 주입 후 도안에 맞게 몸에 분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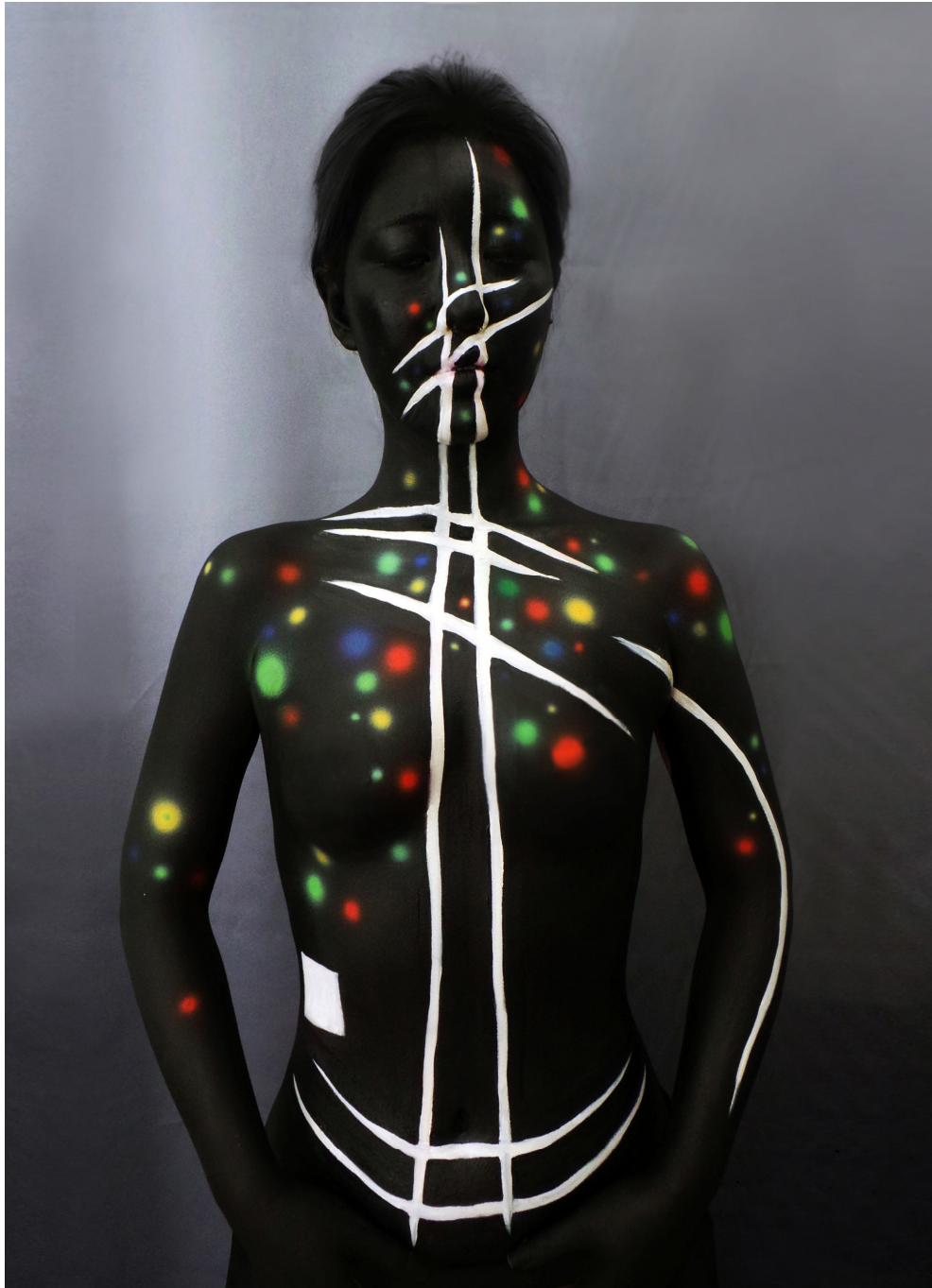
④ 분사된 흰색 물감 위에 표현하고자 하는 색상의 액상물감을 에어브러시에 주입 후 분사한다. 이때 분사되는 거리를 조절하여 표현되는 점의 크기를 다양하게 함으로써 울동감을 표현하였다.

⑤ 부착하였던 마스킹 테이프를 제거한 후 흰색 물감을 바른다. 선의 정교함을 위하여 거리감을 두고 표현 범위를 체크 하면서 페인팅하였다.

⑥ “심사가 없는 전시를 위한 벽화 디자인 벽B”와 이질감이 들지 않도록 전반적인 색의 균형과 범위를 고려하여 완성된 작품을 수정 보완 한 후 마무리 하였다.

<표 2> 작품 I 디자인 이미지





<그림 26> 작품 I

2) 작품 II

(1) 디자인 의도

<그림 27>은 칸딘스키의 작품의 조형요소 중 ‘선’을 상징하는 두 작품 중 대각선이 표현된 작품인 “결합”을 응용하여 디자인하고, 회화적 기법으로 바디아트를 제작하였다.

이 작품에서 칸딘스키는 직선을 주로 사용하여 힘차고 간결한 표현을 보이고, 직선이 잘 계산되어 있으며, 대각의 직선들이 유기적으로 교착하여 하나의 구조로 표현하였다.

대각선은 동일한 각을 가지고 있으며 양쪽 선으로부터 도식으로 떨어져있고 균일하게 기울어져 있는데, 이 상태가 바로 대각선의 울림을 결정하였다.

“결합”에서 보여 지는 다섯 면 중 우측 세 면에는, 무한한 움직임의 가능성 중에서 가장 간결한 형태인 대각선을 주로 사용하여 제작됨을 볼 수 있다. 이 대각선들과 가운데 면의 중심에 보여 지는 기하학적 기초평면을 모티브로 하여 디자인을 구성하였다. 모티브가 되는 세 면 중, 가운데 백색 면을 인체의 중심으로 하여 흑색 면을 인체의 양팔과 다리를 잇는 선으로 구분 짓고 모티브와 동일하게 배색함으로써 작품과의 유사성이 돋보이며 구조적으로 안정되어 보이도록 표현하였다.

칸딘스키의 작품과 유사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구성요소들의 표현위치는 동일 시 하였으나, 무채색의 배경색위에 그려진 대각선들의 시안성을 위하여 배경색과의 명도차를 두고 선명하게 채색 하였다.

이와 같이 작품 II 에서는 인체를 세 면으로 구분하여 구조적 안정감을 표현하였고, 구분된 면의 배경 색을 무채색으로 표현한 뒤 그 위에 그려진 대각선 및 기초평면을 유채색으로 채색하여 구성은 동일 시 하되 채도와 명도에 변화를 주어 표현 요소인 ‘선’이 강조되도록 <표 3>과 같이 디자인하고

바디아트로 제작하였다.

(2) 제작 방법

① 바디페인팅용 언더웨어를 모델에게 입히고 흰색 펜슬을 사용하여 큰 형태부터 도안을 디자인 하였다.

② 세 면으로 분할하여 구성요소들을 디자인 하였다.

③ 바디 전체에 도안을 디자인 한 후, 수성물감을 사용하여 면적이 넓고 명도가 높은 세 개의 면 중에서 가운데 면의 배경색 먼저 페인팅한 후 크기와 명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페인팅하였다.



④ 구성 요소들의 명확성을 위하여 모든 그림에 세필 붓을 이용하여 검정 선으로 외형을 그려줌으로써 입체감을 더하였다.

⑤ 전체적인 윤곽이 표현되면 나머지 작은 부분들까지 균형을 고려하여 페인팅하였다.

⑥ “결합” 작품과 유사성이 변질되지 않도록 수시로 거리감을 두고 관찰하여 구성 요소들과 색의 표현을 조화롭게 하였다.

⑦ 전체적인 직선의 형태를 확인 후 작품중심의 배경색인 흰 색으로 얼굴을 페인팅 한 뒤 인조속눈썹을 부착하여 마무리 하였다.

<표 3> 작품Ⅱ 디자인 이미지

	
주 제	“결합”
재 료	수성물감, 인조속눈썹
색상 배색	



<그림 27> 작품Ⅱ

3) 작품Ⅲ

(1) 디자인 의도

<그림 28>은 칸딘스키의 작품의 조형요소 중 ‘선’을 상징하는 두 작품 중 수평선과 수직선으로 표현된 작품인 “느슨함 속의 딱딱함”의 조형요소를 응용하여 회화적 기법으로 바디아트를 제작 하였다.

칸딘스키의 작품에서는 서로 상이한 방향으로 반듯하게 계속 뻗어나가며 차고 무한한 움직임의가능성 에서 가장 간결한 형태인 수평선과, 따뜻하고 무한한 움직임의 가능성에서 가장 간결한 형태인 수직선이 주로 표현되어 있다. 이 그림 안의 수평선과 수직선이 만나면서 교차점이 형성되고 그 교차점들로 인하여 여러 면 들이 그려짐으로써 면의 구성이 먼저 보일 수 있으나, 그 면을 형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조형요소는 ‘선’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작품Ⅲ 에서는 선들이 모여 만든 큰 면을 모티브로 하여 그 면이 나타내는 예각삼각형과 둔각삼각형의 위치를 바꾸었다. 또한, 인체의 하반신에 무거움 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둔각삼각형을 배치함으로써 전체적인 디자인의 구성에 안정감을 주었다.

작품의 중심에 위치한 검정 선은, 예각삼각형과 둔각삼각형을 이어주며 그림의 중심을 나타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선을 인체의 척추에 표현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재해석하여 <표 4>와 같이 디자인 하고 페인팅 기법으로 바디아트를 제작하였다.

(2) 제작 방법

① 바디페인팅용 언더웨어를 모델에게 입히고 흰색 펜슬을 사용하여 큰 형태부터 도안을 디자인 하였다.

② 큰 형태 안의 직선들을 평행, 수직의 형태로 디자인 한다. 이때 선을 직선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수시로 거리감을 두고 관찰하며 직선의 형태를 확인하며 그린다.

③ 바디 전체에 도안을 디자인 한 후, 수성물감을 사용하여 면적이 넓은 배경색부터 페인팅을 시작하여 면적이 작은 구성요소들을 순차적으로 페인팅하였다.



④ 선의 명확성을 위하여 모든 면의 경계 지점을 평평한 붓을 사용하여 그려줌으로써 선을 강조함을 표현 하였다. 이때 리듬감을 위하여 일정한 두께로 그리지 않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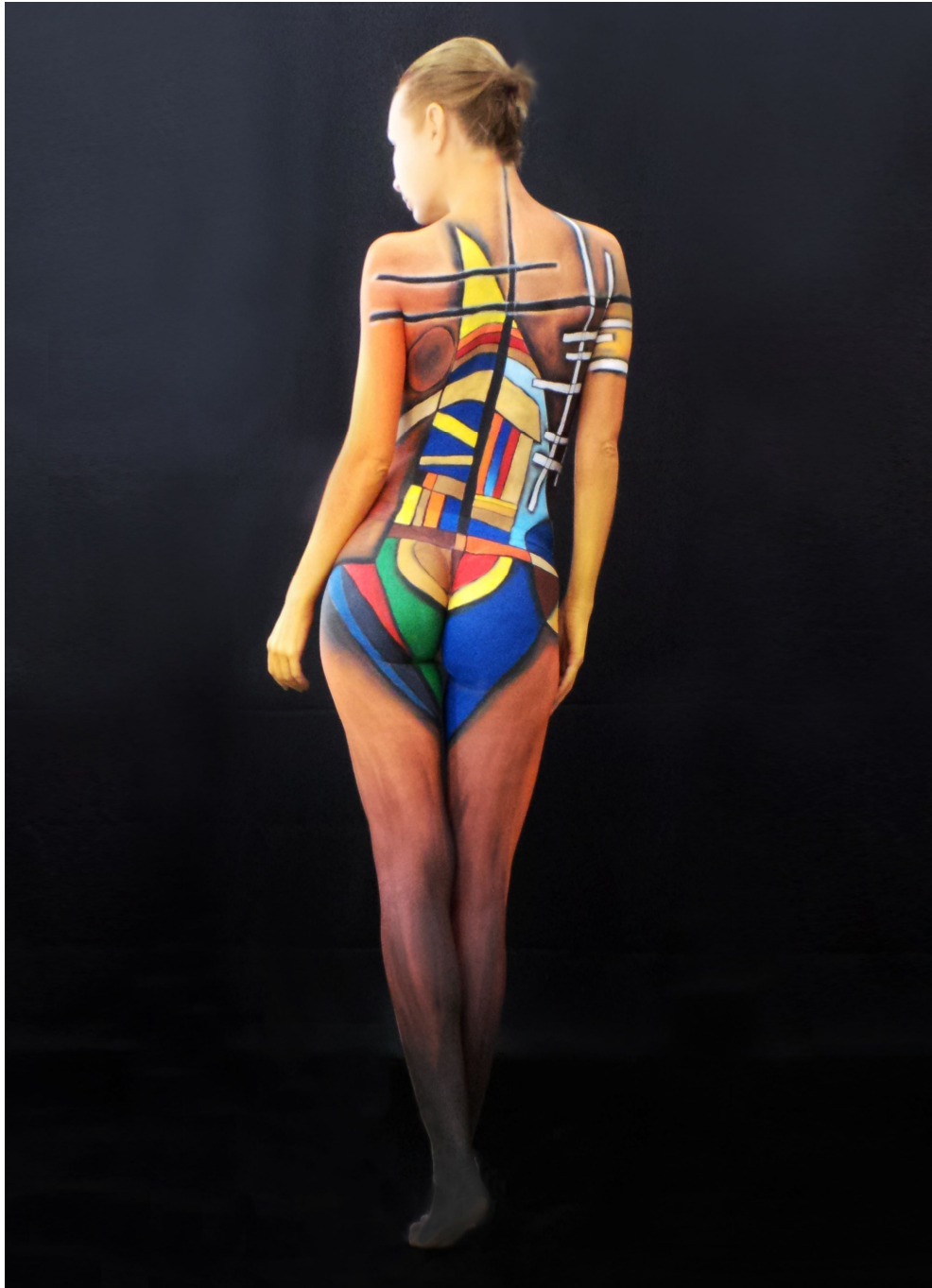
⑤ 가장 큰 형태의 외곽을 검정색으로 두껍게 그린다. 그려진 검정 선을 배경 방향으로 그라데이션 함으로써 입체감을 더하였다.

⑥ 체적인 윤곽이 표현되면 나머지 작은 부분들까지 균형을 고려하여 페인팅 하였다.

⑦ “느슨함 속의 딱딱함” 작품과 유사성이 변질되지 않도록 수시로 거리감을 두고 관찰 하여 구성 요소들과 색의 표현을 조화롭게 하였다.

<표 4> 작품Ⅲ 디자인 이미지

	
주 제	“느슨함 속의 딱딱함”
재 료	수성물감
색상 배색	



<그림 28> 작품Ⅲ

4) 작품Ⅳ

(1) 디자인 의도

<그림 29>는 칸딘스키 작품의 구성요소 중 ‘면’을 상징하는 작품인 “어둠 속으로”를 응용하여 디자인하고 회화적 기법으로 바디아트를 제작하였다.

칸딘스키의 작품은 삼각형 이라는 면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였고, 제목과 같이 삼각형의 모든 방향이 어두운 방향인 위로 향하도록 구성한 그림이다.

칸딘스키는 그림의 위는 블루계열로 페인팅 하였고, 아래는 브라운계열로 페인팅하여 하늘과 땅으로 표현 하고자 하였다.

작품Ⅴ은 주요 구성인 삼각형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도록 하였고, 바탕색 표현은 위, 아래 두 색의 위치를 바꾸고 명도에 변화를 주어 디자인 하였고, 푸른색을 하단에 배색함으로써 삼각형의 연속이 지시하는 것이 어두운 하늘이 아닌 어두운 바다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 작품은 앞의 작품들과는 다르게 그림의 일부가 아닌 구성과 색 전체를 모티브로 하여 재해석하고 바디아트로 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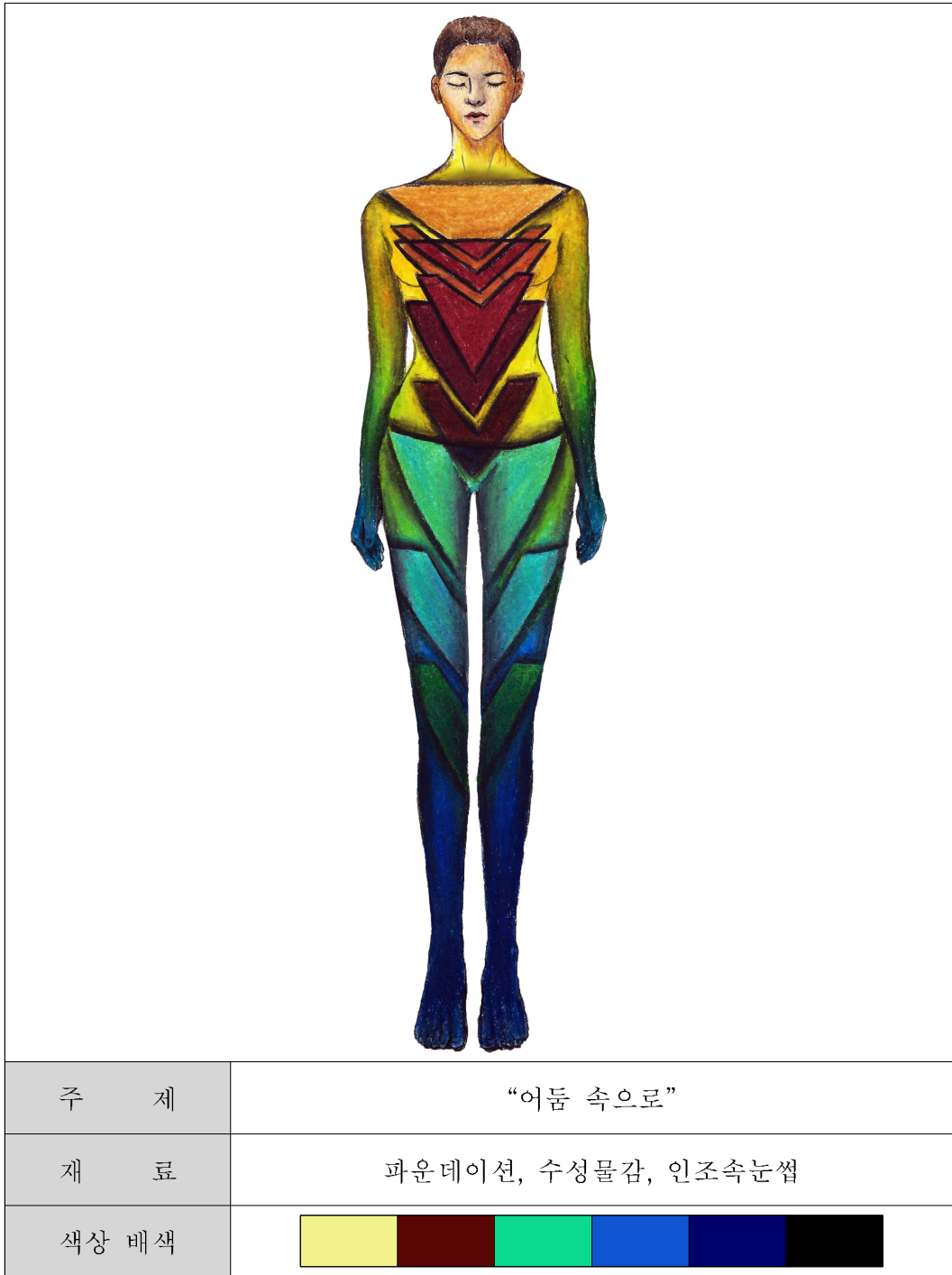
이와 같이 “어둠 속으로” 재해석에서는 신체의 상반신에는 밝은 브라운계열인 베이지색으로 페인팅하여 모래사장을 표현 하였고, 하반신에는 푸른색을 페인팅하여 바다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이런 배경색 위에 삼각형이라는 면의 연속으로 역동감을 표현 하였고, 방향은 아래로 향하도록 하여 면이 강조될 수 있도록 <표 5>과 같이 디자인 하여 인체의 전신 전면에 바디아트로 제작하였다.

(2) 제작 방법

① 바디페인팅용 언더웨어를 모델에게 입히고 흰색 펜슬을 사용하여 가장 위의 삼각형부터 그린다.

- ② 삼각형의 크기를 조절하면서 아래를 향하도록 그리되, 일부분은 겹치는 면이 생기도록 디자인 한다.
- ③ 바디 전체에 도안을 디자인 한 후, 수성물감을 사용하여 면적이 넓은 배경색을 페인팅하고 순차적으로 삼각형도 페인팅한다.
- ④ 면의 명확성을 위하여 모든 삼각형과 배경이 만나는 경계선에 평평한 붓을 사용하여 검정색 선을 두껍게 그린다.
- ⑤ 그려진 검정색 선이 배경색과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그라데이션 하여 삼각형이 배경에서부터 돌출되어 보이도록 입체감을 주었다.
- ⑥ “어둠 속으로” 작품과 유사성이 변질되지 않도록 수시로 거리감을 두고 관찰 하여 구성 요소들과 색의 표현을 조화롭게 하였다.
- ⑦ 전체적인 구성과 면의 형태를 확인 후 상반신 배경색과 동일한 색으로 얼굴을 페인팅 한 뒤 인조속눈썹을 부착하여 마무리 하였다.

<표 5> 작품Ⅳ 디자인 이미지





<그림 29> 작품Ⅳ

5) 작품 V

(1) 디자인 의도

<그림 30>은 칸딘스키 작품의 구성요소 중 ‘색채’를 상징하는 “노랑·빨강·파랑”을 응용하여 회화적 기법으로 바디아트를 제작하였다.

칸딘스키의 작품은 색의 삼원색을 기본으로 하여 파생되는 녹색, 분홍, 초록, 보라 등을 캔버스에 표현한 작품으로 색채에 대한 연구결과라는 평가를 듣는 작품으로 연구자는 이 그림을 삼원색과 중심이 되는 푸른 원을 모티브로 하여 재해석하고 디자인 하여 바디아트로 제작하였다.

형태적 측면에서는 푸른색을 원형, 붉은색을 사각형, 노란색을 삼각형에 대입시켜 주제와 색의 일치를 시도 하였으며, 표현된 색 위에 명확하고 평면적인 요소들을 기하학적 형태로 구성하여 디자인 하고, 페인팅 또한, 삼원색에서 파생되는 색들로 배색하여 “노랑·빨강·파랑”과의 일치성을 강조하였다. 이런 고채도의 디자인에서 구성된 요소들 하나하나의 형태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각 색의 경계를 또렷하게 표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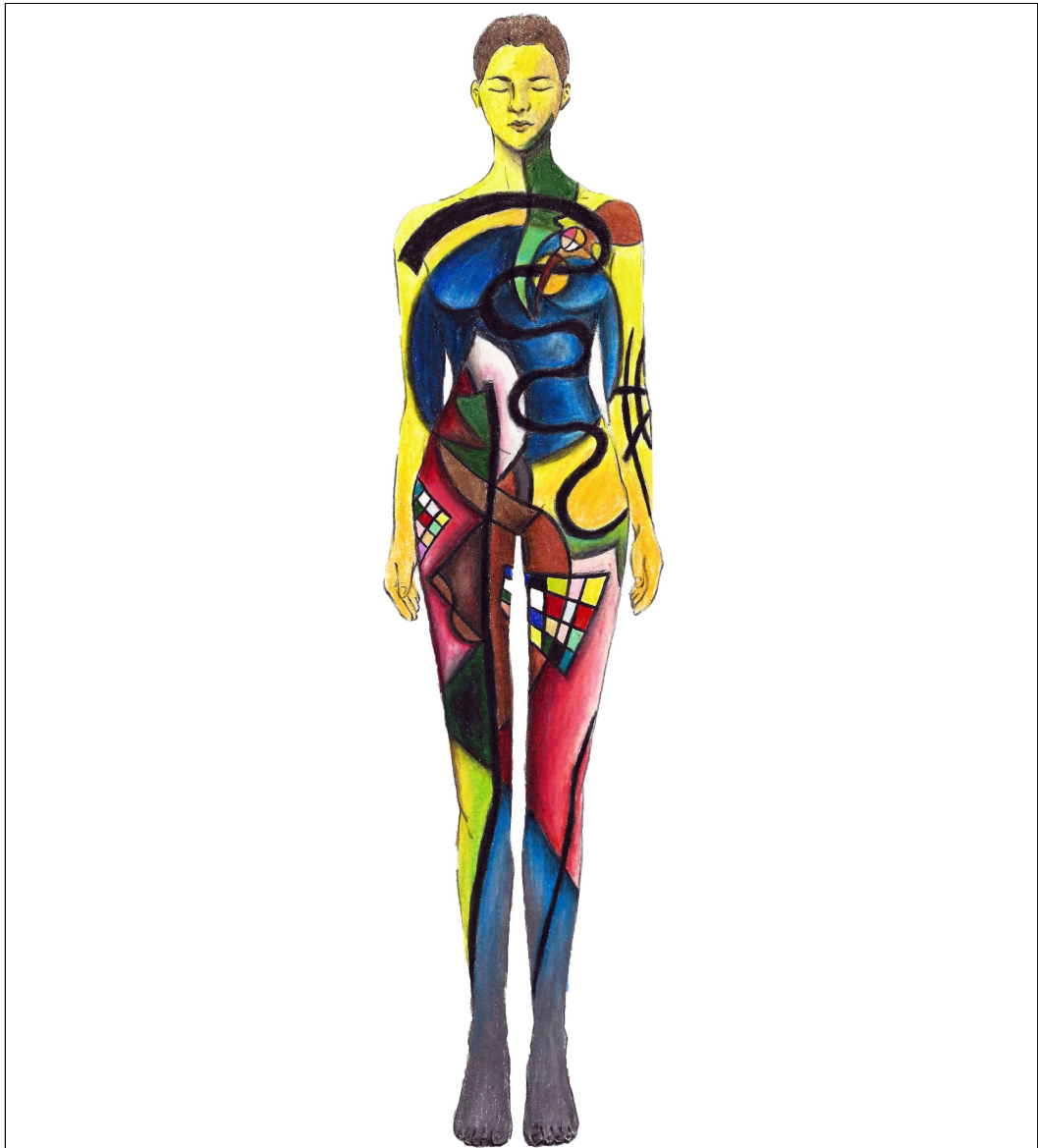
이와 같이 작품VI에서는 신체의 상반신에는 파랑을 상징하는 원을 그리고, 그 위의 배경색을 노랑으로 페인팅하며 하반신에 붉은색을 강조함 으로써 삼원색을 표현하고자 함을 알 수 있도록 바탕색을 배색하고 그 위의 구성 또한, 삼원색과 삼원색에서 파생되는 색들로 <표 6>과 같이 디자인하여 인체의 전신 전면에 바디아트로 제작하였다.


(2) 제작 방법

① 바디페인팅용 언더웨어를 모델에게 입히고 흰색 펜슬을 사용하여 상반신의 큰 원을 먼저 그린 후 이외의 공간에 전체적인 균형을 고려하여 바디아트를 디자인 한다.

- ② 바다 전체에 디자인 한 후, 수성 물감을 사용하여 구성 요소들의 크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페인팅한다.
- ③ 페인팅된 구성요소들의 명확성을 위하여 세필 붓을 사용하여 검정선으로 외형을 그린다.
- ④ 그려진 검정색 선이 배경색과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그라데이션 하여 구성요소들에 입체감을 주었다.
- ⑤ <노랑 빨강 파랑> 작품과 유사성이 변질되지 않도록 수시로 거리감을 두고 관찰 하며 제작하였고 색의 표현이 조화롭게 되도록 그라데이션 기법에 비중을 두었다.
- ⑦ 전체적인 구성과 색의 배색을 확인 후 인조속눈썹을 부착하여 마무리 하였다.

<표 6> 작품 V 디자인 이미지



주 제	“노랑·빨강·파랑”
재 료	파운데이션, 수성물감, 인조속눈썹
색상 배색	



<그림 30> 작품 V

<그림 31>은 칸딘스키의 작품의 조형요소 중 '형태'를 상징하는 작품 “파란 활 모양”을 응용하여 회화적 기법으로 바디아트를 제작하였다.

칸딘스키의 작품에서는 형태의 구성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명확하고 평면적인 형태들은 기하학적 구성으로 캔버스에 펼쳐져 있어, 인체에 적용 시 때 다소 난해한 표현이 될 수 있다. 이 작품에서는 활을 상징하는 푸른색의 곡선과 곡선위에 두 원형을 모티브로 하여 인체의 곡선의 아름다움을 표현 할 수 있도록 가슴과 허리라인에 위의 두 모티브를 우선적으로 디자인 한 후, 이외의 공간에 구성요소들을 매음으로써 다른 시각의 형태로 재구성 하였다.

여성의 인체가 갖는 유기적인 곡선과 볼륨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기 위하여 신체에 돌출된 부분에 이 작품의 모티브를 우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파란 활 모양”이 갖고 있는 평면성을 입체감 있게 재해석 하여 <표 7>의 디자인 스케치와 같이 표현하였다.

칸딘스키의 “파란 활 모양”을 재해석 한 만큼 작품과의 유사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색의 배색과 구성요소들을 형태는 그대로 사용하되 기하학적 구조를 신체의 일부에 먼저 적용한 후 나머지 요소를 배치하여 다른 시각에서의 기하학적 구성을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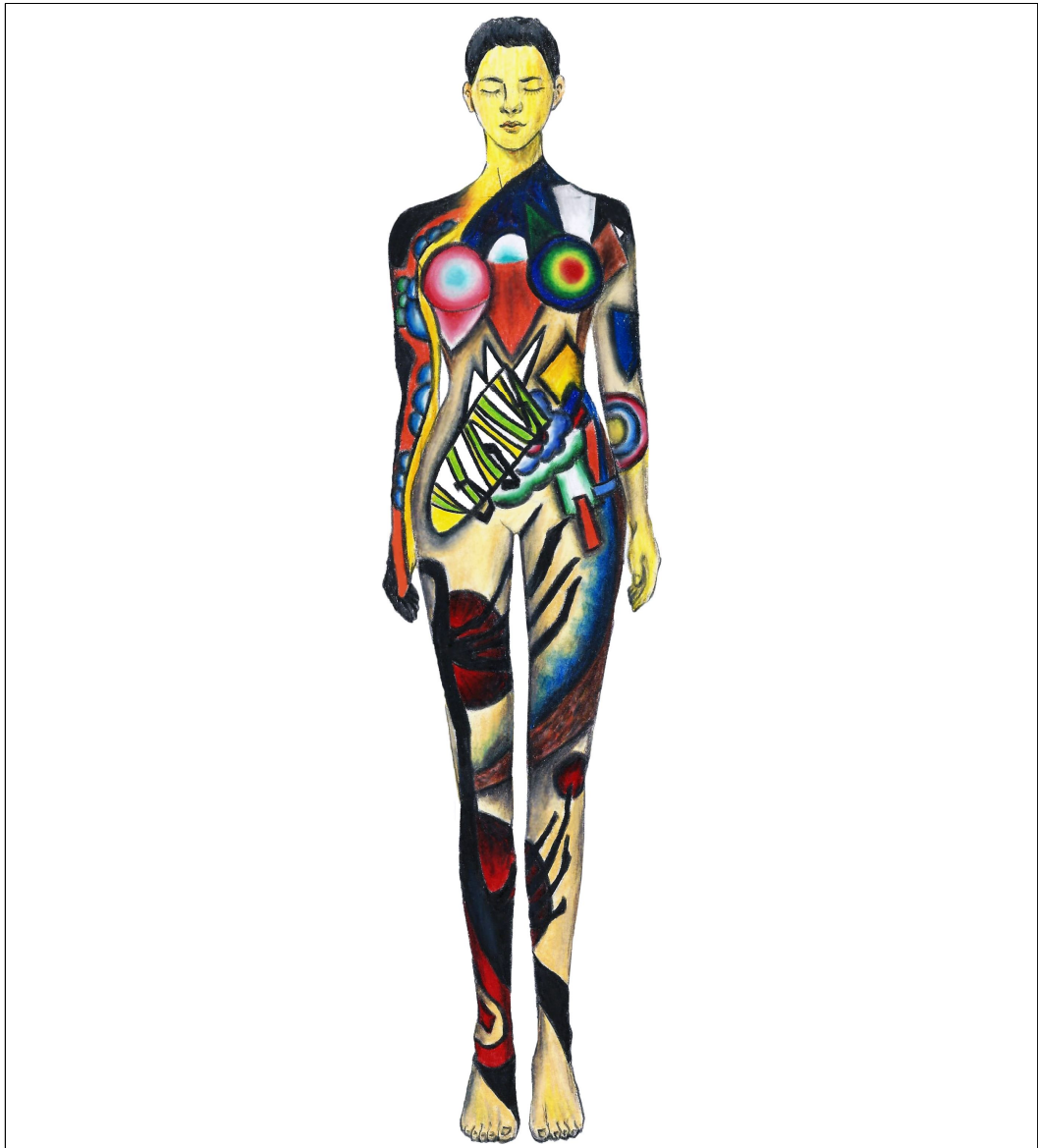
(2) 제작 방법


① 바디페인팅용 언더웨어를 모델에게 입히고 흰색 펜슬을 사용하여 가슴과 활을 상징하는 곡선을 먼저 그린 후 이외의 공간에 전체적인 균형을 고려하여 바디아트를 디자인 한다.

② 바디 전체에 도안을 디자인 한 후, 수성물감을 사용하여 면적이 넓고 명도가 높은 바탕색을 먼저 채색한 후 크기와 명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채색 한다.

- ③ 구성 요소들의 명확성을 위하여 모든 그림에 검정 선으로 외형을 그린다.
- ④ 외형을 그린 검정선이 바탕색에 녹아들 수 있도록 젖은 브러시를 사용하여 검정선과 바탕색의 경계지점을 터치하여 그라데이션 기법으로 표현한다.
- ⑤ 전체적인 윤곽이 표현되면 나머지 작은 부분들까지 균형을 고려하여 채색한다.
- ⑥ 물감으로 표현되지 않는 얼굴에는 밝은 파운데이션에 노란색 물감을 약간 섞은 후 피부에 도포한다. 이때 목의 색과 이질감이 들지 않도록 목의 색을 브러시를 사용해 얼굴 까지 끌어올려 준다.
- ⑦ “파란 활 모양” 작품과 유사성이 변질되지 않도록 수시로 거리감을 두고 관찰 하여 구성 요소들과 색의 표현을 조화롭게 한다.
- ⑧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색과 형태를 확인 후 수정 보완한 뒤 인조속눈썹을 부착하여 마무리 한다.

<표 7> 작품Ⅵ 디자인 이미지



주 제	“파란 활 모양”
재 료	파운데이션, 수성물감, 인조속눈썹
색상 배색	



<그림 31> 작품Ⅵ

IV. 결론 및 제언

디지털 시대는 세계화와 정보화로 인하여 산업사회의 패러다임 변화와 더불어 문화적 콘텐츠가 중요하다. 그 중 인간의 몸을 대상으로 미를 창조하고 표현하는 바디아트는 아티스트들에게 있어서 인체 발상을 통한 중요한 수단이자 대상으로 선택되고 있다. 이에 바디아트는 예술적 측면에서 회화와 바디아트 표현기법을 접목시켜 새로움을 표현할 디자인 능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칸딘스키 작품의 조형요소들을 응용하여 재구성하고 바디아트를 제작함으로써 회화와 바디아트의 결합으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바디아트 작품을 제작하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방법은 학술자료를 바탕으로 칸딘스키와 바디아트의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고, 칸딘스키 작품의 조형요소에 따른 상징적 작품을 도출 하였으며, 도출된 6점의 작품을 모티브로 하여 인체를 캔버스로 간주하고 바디아트 페인팅용 물감을 사용하여 회화적 기법 및 에어브러시 기법으로 바디아트를 제작 하였다.

바디아트의 작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작품 I 은 칸딘스키 작품의 조형요소 중 ‘점’을 상징하는 작품이다. 칸딘스키 그림 “심사가 없는 전시를 위한 벽화 디자인 벽B”의 우측의 점들과 그 점을 분할한 선을 모티브로 하여 응용하고 색감에 채도의 변화를 주어 명확성이 강조되도록 에어브러시 기법으로 표현하였다.

작품 II는 칸딘스키 작품의 조형요소 중 ‘선’을 상징하는 작품 중, 첫 번째 작품으로 칸딘스키의 작품 “결합”의 대각선을 모티브로 하여 페인팅 기법으로 표현 하였다.

작품 Ⅲ는 칸딘스키 작품의 조형요소 중 ‘선’을 상징하는 작품 중, 두 번째 작품이다. 칸딘스키의 작품 “느슨함 속의 딱딱함”의 수직선과 수평선을 모티브로 응용하고 재구성하여 페인팅 기법으로 표현 하였다.

작품 Ⅳ는 칸딘스키 작품의 조형요소 중 ‘면’을 상징하는 작품이다. 칸딘스키의 작품 “어둠 속으로”의 삼각형을 모티브로 하여 응용하고, 면의 연속으로 역동감을 표현 하고 삼각형의 방향을 재구성하여 페인팅 기법으로 표현 하였다.

작품 Ⅴ는 칸딘스키 작품의 조형 요소 중 ‘색채’를 상징하는 작품이다. 칸딘스키의 작품 “노랑·빨강·파랑”의 삼원색과 파생되는 색들을 응용하고 색채 위에 상승하는 곡선과 파랑을 나타내는 형태를 모티브로 하여 페인팅 기법으로 표현 하였다.

작품 Ⅵ는 칸딘스키 작품의 조형 요소 중 ‘형태’를 상징하는 작품이다. 칸딘스키의 작품 중 기하학적 형태를 나타내는 “파란 활 모양”을 응용하여 기하학적 구성을 이루고 있는 형태들을 모티브로 디자인하고 페인팅 기법으로 표현 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칸딘스키 작품을 토대로, 작품에 나타난 조형요소를 응용하여 바디아트로 표현하였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사진을 편집하고 보정함으로써 연출 의도의 부족함을 보완하여 효과적인 작품을 제작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칸딘스키 작품의 조형요소를 응용하여 바디에 접목함으로써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바디아트 디자인을 창출 하였고, 바디아트로 작품제작을 함으로써 회화와 바디아트의 결합이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바디아트 작품을 제작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 통하여 작가의 회화와 바디아트를 접목한 바디아트 디자인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더 많은 작가들의 작품이 재

해석되어 시각적 디자인과 표현방법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강경림(2014). 칸딘스키회화의 표현적 특성을 활용한 경험의 심상표현 지도 방안 연구.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경화(2009). *Make you up*. 서울: 국제.
- 강대영(2003). *한국분장예술*. 서울: 지인당.
- 강민정(2006). 패션 누드에 나타난 바디페인팅의 특성. 숙명여자대학교 특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공영희(2007). 구스타프 클림트의 회화작품을 응용한 바디 아트(Body Art)에 관한 연구 : 바디페인팅 작품 제작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희(2013). 칸딘스키와 피테의 예술론에 나타난 유기체적 조화. *독일언어문학*. 60(0). pp.75-92.
- 김광우(2015). *칸딘스키와 클레 - 추상미술의 선구자들*. 경기: 미술문화.
- 김길용(2000). 모더니즘 시오 회화의 구조적 상동성(1) - 벤의 절대시론과 칸딘스키의 추상론의 비교. *독일문학*. 75(0). pp.138-166.
- 김동호(2006). 현대미술에 있어서 혼용된 오브제와 하이브리드 오브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미옥(2015). 바실리 칸딘스키 회화와 조형이론. *조형 미디어학*. 18(1). pp.13-20.
- 김보연(2015). 크레이그 오웬스의 알레고리 이론에 따른 바디아트 작품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디자인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숙경(2006). 칸딘스키. 서울: 재원.
- 김양은·이미희·송미영·김은주(2009). *'ART' Make-up*. 경기: 광문각.
- 김연아(2015). *바디아트퍼포먼스와 메를로퐁티 몸 현상학의 상호작용 관계*

-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유성·홍세원(2005). 바디아트에 나타난 타이포그래피 표현에 관한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11(2). pp.160-169.
- 김유승(2015). 광고 제작을 위한 바디페인팅과 패션 콜라보레이션 작품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진(2014). 미메시스 개념을 응용한 바디아트 표현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현화(1999). 20세기 미술사 : 추상미술의 창조와 발전. 서울: 한길아트.
- 김혜숙(2008). 칸딘스키(Kandinsky) 회화의 조형성 연구: 바우하우스 시대를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화성(2007). 칸딘스키 회화의 조형적 특성 연구.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효진(2015). 사이키델릭의 특성을 응용한 바디아트 제작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디자인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버트 린튼. 윤난지 역(1999). 20세기의 미술. 서울: 예경.
- 노영덕(2003). 글과 그림의 만남 가능성 : 비 모방 예술의 경우 - 칸딘스키 추상 미술과 고대 영감론의 시문학을 중심으로. *미학·예술학 연구*. 18(0). pp.137-164.
- 노영덕(2009). 추상미술의 미학적 이해 -칸딘스키의 경우와 몬드리안의 경우 비교-. *기초조형학연구*. 10(5). pp.95-105.
- 맹유진(2008). 러시아 구축주의 미술작품과 조각을 모티브로한 컨슈머 헤어작품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14(4). pp.1547-1561.
- 박경화·권수애(1998). 칸딘스키 색채론을 통해 본 현대의상 연구. *생활과학 논문집*. 1(0). pp65-79.
- 박천신(2008). 디지털 아트 디지털 페인팅. 서울: 한언.

- 박태용(2006). *러시아 구성주의 무대양식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방경란(2004). 미술치료모델로서의 작품분석연구 -칸딘스키작품을 중심으로-. *디자인학 연구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sign Science*. 17(2). pp.383-392.
- 방기정(2011). *하이브리드 탈 장르화를 응용한 메이크업 디자인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배미영(2010). *칸딘스키 조형이론과 작품분석을 통한 색채특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변지은(2016). *칸딘스키 회화에 나타난 의사소통적인 색채심리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예술디자인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봉균·이희봉(2004). 1920년대 러시아 건축 상황에 관한 연구 -OSA(현대 건축가동맹)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계획계)*. 24(2). pp.861-864.
- 손호영(2008). *현대 패션에 나타난 러시아 구성주의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원선·권태순(2014). *아트 메이크업 발상*. 서울: 훈민사.
- 심문섭(2012). *서양의미술12*. 경기: 서문당.
- 신화정(2015). *바실리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 작품의 조형적 요소를 응용한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진희·박춘심·이종란·이미희·우미옥(2005). *Make up Design*. 서울: 광문각.
- 오인영·신원선·안성준(2010). *아트메이크업 디자인*. 서울: 훈민사.
- 이경숙(2012). “칸딘스키(Kandinsky)의 예술론에서 본 댄스스포츠”. *한국*

- 체육철학회지. 20(3). pp.361-375.
- 이영환(1978). *서양미술사*. 서울: 박영사.
- 이은미·이강희(2015). 칸딘스키의 추상화를 이해하는 퍼지 전문가 시스템 연구 -언어 변수와 퍼지 집합을 중심으로-. *기초조형연구*. 16(3). pp.441-450.
- 이진숙(2007). *러시아 미술사*. 서울: 황금가지.
- 이찬협(2015). *러시아 구성주의 무대미술 특성 연구*. 상명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화순·김보민·채송화·이윤정·이운현(2010). *The Art of Makeup*. 서울: 형설출판사.
- 이혜경(2012). 피테의 색채이론으로 본 바우하우스 이론가들의 색채 성향 분석 -요하네스 이텐, 파울 클레, 칸딘스키, 라즐로 모홀리나기의 회화 중심으로-. *한국과학 예술포럼*. 10(0). pp.33-47.
- 임지연(2011). 셸링(F.W.J.Schelling)의 '무한한 생성'의 이념으로 본 칸딘스키(W. Kandinsky)의 추상회화. *기초 조형학 연구*. 12(1). pp.461-469.
- 정재찬(2015). 이상과 칸딘스키의 상호텍스트성 탐구 -<권태>를 중심으로 -. *문학교육학*. 46(0). pp.53-80.
- 조민형(2005). 칸딘스키 조형요소 및 색채 반영에 의한 쇤베르크 <달에 홀린 피에로>의 표현주의 고찰.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지빌레 엔겔스·코르넬리아 트리슈베르거. 홍진경 역 (2007). *칸딘스키와 청기사파*. 서울: 예경.
- 차영미(2005). *구성주의에 나타난 추상적 표현요소를 이용한 작품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종순(2002). 칸딘스키 추상회화의 내적 표현과 동향적 조형세계의 상관성. *역사와 사회*. 29(0). pp.31-52.
- 천지연·김정희·이귀영·방효진·송수미·오수나(2013). *Art & Character Make up*. 서울: 청구문화사.
- 최경옥(2009). *아르누보 문양 이미지를 응용한 바디 아트 연구 : 바디페인팅 작품제작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태동숙(2011). *투명성을 응용한 바디아트 표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명숙·홍세원·김유성(2006). *The Body Art*. 서울: 청구문화사.
- 한명숙(2005). *바디아트에 나타난 메이크업의 포스트모더니즘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홍일희(2013). 니체와 칸딘스키의 예술론 -음악과 회화를 중심으로-. *범한철학*. 68(0). pp.171-196.
- 홍종숙(1997). 칸딘스키 회화에 나타난 색채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The Academy of Freelance Makeup. 정연자·신세영 역(2015). *MAKEUP IS ART: 오리지널 모습을 창조하기 위한 전문적 테크닉*. 경기: 교문사.
- W.칸딘스키. 차봉희 역(2015). *점·선·면 - 회화적인 요소의 분석을 위하여*. 경기: 열화당. 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네이버 국어사전.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20982000>. 자료
검색일: 2016. 01. 02.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13350600>. 자료 검색
일: 2016. 01. 02.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33389500>. 자료 검색
일: 2016. 01. 16.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529631&cid=41
799&categoryId=41800](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529631&cid=41799&categoryId=41800). 자료 검색일: 2016. 01. 12.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74873&cid=46720&
c
id=46720&categoryId=46863](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74873&cid=46720&c
id=46720&categoryId=46863). 자료 검색일: 2016. 02. 15.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49206&mobile
&cid=40942&categoryId=34391](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49206&mobile
&cid=40942&categoryId=34391). 자료 검색일: 2016. 03. 11.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eun_de72/130084952874. 자료 검색
일: 2016. 01. 21.
<http://blog.naver.com/misulmun49/110100447114>. 자료 검색
일: 2016. 02. 17.
<http://blog.naver.com/junghye7799/80100200625>. 자료 검색
일: 2016. 04. 11.

doopedia.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
view&MAS_IDX=101013000714790](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
view&MAS_IDX=101013000714790). 자료 검색일: 2016. 03.
11.

ABSTRACT

The formative elements of Kandinsky works Body art produced

Moon, Su Jin

Make-up·Special effect make-up Major

The Graduate of Convergence Beauty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research intends to use formative feature of Kandinsky's work and make it to body art. As Kandinsk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art theorists of 20C with the research of psychological value of today's art and color, he achieved innovation in art history, which is the birth of pure abstract painting, while discarding realistic form.

Kandinsky had clarity of composing factors due to the effect of constructivism after 20C. He show the expression while having dot, line, face and shape and using color and the strict shape limited mathematically dominated his work.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make body art by using Kandinsky's work.

The method of this research was considering theoreticalbackground of

Kandinsky and body art based on academic data and advanced research, deducting the work with formative factor of Kandinsky's work and making body art by using deducted work.

For the first work, I used "wall B of wall painting design for the exhibition without evaluation", which is symbolizing work of 'dot' among composing factors as a motif and made body art. I reinterpreted the picture based on the group of dots on the right side among many dots shown in the picture and the line cutting through those dots as a motif, designed by making entire face of upper body as a canvas and focused to compose whole framework with a feeling of unity.

In case of the work symbolizing line, I selected and used two dots representing diagonal line and made body art.

For the second work, I designed and made body work with division of the face which is the work using "combination" among works symbolizing line and diagonal line with the possibility of movement to express the power of moving direction as a motif.

As the third work used "hardness in looseness" among two works symbolizing line, I designed the composition having tension with repetitive parallel lines and the line vertically crossing these.

For the fourth work, I designed to express dynamics by using triangle direction shown in "into darkness" which is the work symbolizing line as a motif and made body art.

For the fifth work, I made body art by using "yellow.red.blue" which is the work symbolizing color. I designed while composing three primary colors and the colors derived from them based on the motif of geometric

components shown on three primary colors.

For the sixth work, I used “blue arching” which symbolizes shape and made body art with a motif of components symbolizing arching.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I assorted modeling elements of Kandinsky’s work to dot, line, face, color and shape through theoretical consideration of advanced research and made total six body arts of dot 1 dot, line 2 dots, face 1 dot, color 1 dot and shape 1 dot by using the work symbolizing assorted modeling elements.

When making the work, I regarded the body as a canvas, used various materials such as watercolor and foundation for body, air brush, false eyelashes and etc suitable for designing intention and made body art with pictorial technique and air brush technique.

After shooting, I made up for the lack of direction plan by modifying and revising pictures with photoshop program so I could make more effective work.

While creating new body art design that never existed before by combining the feature of Kandinsky’s work with the body, I could find out that the combination of painting and body art can make creative and ingenious body art work.

I think that the result of this research will be used as a basic data for body art design combining painting of an artist and body art. And I expect that there will be more researches about visual design and expression method after the works of more artists are reinterpreted in the future.